20 대학내일

No.841 2018.3.5~2018.3.11
ISSN 2465-7883

SPECIAL
나는 이렇게 망했다
한발 앞서 망한 선배들의 고백
대학생활 이렇게 하면 나처럼 된다…?

+

소심이의 소심한 생활
복세편살은 아무나 하나

—

#댕낼대숲 #적정거리유지
그거 친한 거 아니고 무례한 거예요

—

어디 보자, 너한테 맞는 동아리는…
조상님이 알려주는 동아리 고르는 법 7

—

독자 참여 코너 '10만원이 생긴다면?'
다음주 10만원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LG Display

Innovation
for a Better Life

보다 나은 삶을 보다 나은 세상을 보다 나은 내일을 보다

LG디스플레이가 생각하는 '보다'는
보다 나은 우리의 삶을, 세상을, 내일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삶의 영감이 되고, 세상을 혁신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보다 선명하고 편리하고 새로운 디스플레이로
LG디스플레이가 우리 모두를 위한 '보다'를 만들어갑니다.

You Dream,
We Display.

사람이 자원인 나라,
그 사람을 키우는 SK

SK
www.skcareers.com

2018 3.08(THU)-23(FRI)

SK 상반기

인턴/신입사원 모집

모집회사

에너지 / 화학 SK이노베이션, SKC, SK바이오팜
정보통신/반도체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주식회사 C&C, SK브로드밴드
마케팅/서비스 SK네트웍스, SK네트웍스[워커힐], SK건설

모집대상

- **인턴사원 :** 인턴십 ('18년 7~8월, 8주) 근무 및 19년 1월 입사 가능자
  ※인턴 평가 결과에 따라 Job Offer
- **신입사원 :** '18년 7월 입사 가능자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전형방법

서류전형 → 필기전형(SKCT) → 면접전형

지원접수

접 수 기 간 : 2018년 3월 8일(목) ~ 3월 23일(금) 24:00
관계사별 Campus Recruiting 상세 일정 및 SK 채용 MIC 영상은 skcareers.com에서 참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년 4월 13일(금)
필 기 전 형 일 자 : 2018년 4월 22일(일)
*SK 채용 MIC 영상은 관계사별 채용 정보 및 직무별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준비한 채용설명회 영상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서 또는 제출서류상 허위 기재가 있거나 자기소개서 표절이 확인된 경우, 전형단계에서의 불이익 및 입사 취소 가능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 / 세부사항은 www.skcareers.com 및 SK채용 공식 블로그 www.skcareersjournal.com 참조

EDITOR
권혜은 hyen@univ.me

PHOTOGRAPHER
김윤희 studio AL

STYLIST
안미나

HAIR
이상근 엔끌로에

MAKEUP
정화영 보보리스네트웍

KIM MYONGJI

김명지

동국대
연극학부 16

www.ust.ac.kr

대한민국 국가연구소대학원

FIRST

국책연구사업에 학생연구원으로 참여
국가전략 분야 차세대 과학기술 리더로 성장

BEST

박사 졸업생 1인당
SCI 제1저자 2.25편, 특허1.88건

KIST KRIBB ETRI KRICT KICT KOPRI 극지연구소 ibs KRISO KIT KIMS KISTI
KIMM KINAC KITECH KFRI KIER KINS KRISS KIOM KSI KERI NFRI KIGAM
KARI KIOST KRRI KASI 한국파스퇴르연구소 KAERI
KRIMS 국가수리과학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Mathematical Sciences 국방과학연구소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2018 후기 석•박사 과정 신입생 모집

| 모집공고 | 2018. 2. 12. (월)

| 원서접수 | 2018. 3. 5. (월) ~ 3. 16. (금)

- ▶ 재학생 전원 국내 최고 수준의 재정적 지원
  (박사과정 최소 160만원 이상, 석사과정 최소 120만원 이상 매달 지급)
- ▶ 정부출연 연구기관 캠퍼스에서 석•박사 R&D 교육
- ▶ 국내 최고 수준의 정부출연(연) 연구원 교수진
- ▶ 최첨단 연구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현장 중심 교육

2018 후기 입학설명회

지 역	일 시	장 소
대 구	2. 28. (수) 14:00 ~ 16:00	KTX 동대구역 회의실 102호
서 울	3. 2. (금) 14:00 ~ 16:00	COEX 컨퍼런스룸(남) 4층 402호
대 전	3. 3. (토) 14:00 ~ 16:00	대전 UST 본부 강당
포 항	3. 5. (월) 14:00 ~ 16:00	한동대 헌동홀 214호

- ▶ 사전신청 및 세부안내 : UST 홈페이지(admission.ust.ac.kr)-입학홍보프로그램-입학설명회
- ▶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후 세부일정 이메일 안내 예정 ▶ ICORE(계약학과) 상담부스 운영
- ▶ 문의 : UST 학생팀(042-865-2336, hrlee@ust.ac.kr)

U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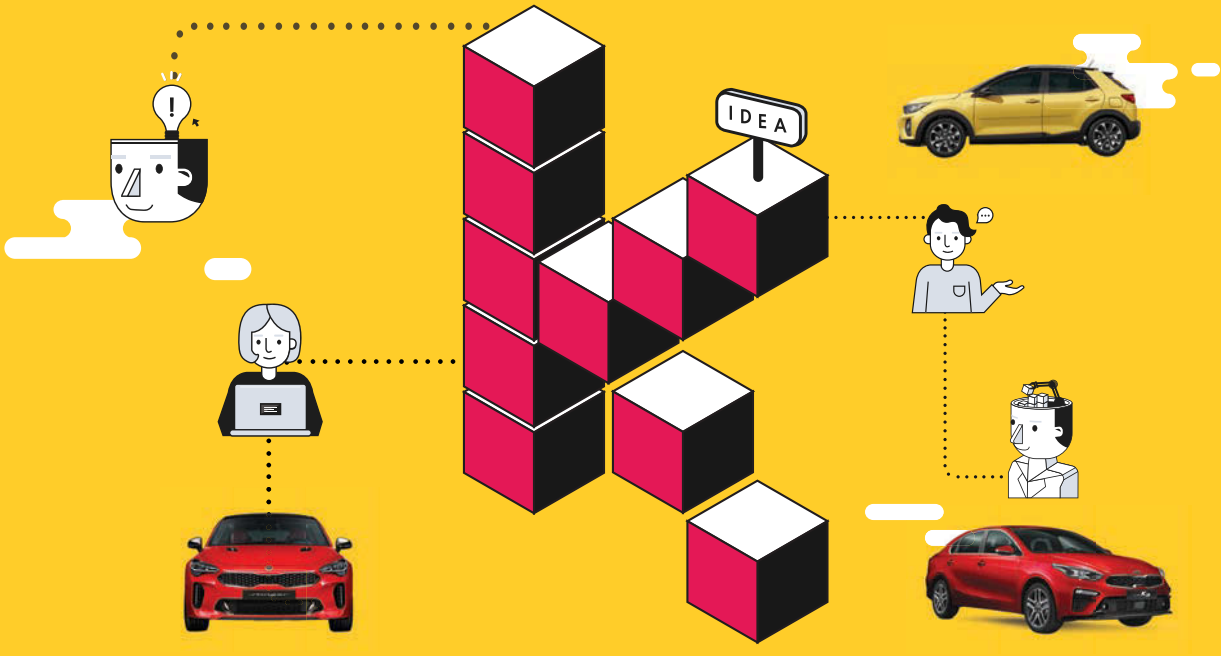
지원 동기가 인상적이에요. 지난 표지모델 중 친구가 있으시다고요?

M.net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를 같이 촬영 했었던 영주 언니예요! 「대학내일」 표지모델이 즐겁고 신선한 경험이었다는 언니의 말을 듣고 도전하게 되었어요. 졸업하기 전, 대학생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기회라는 생각에 위시리스트에도 적어놨었는데, 촬영하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02

<아이돌 학교>에 출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요?

무대에 섰을 때 들려오던 팬 분들의 응원과 함성이 기억에 남아요. 합숙하는 동안 무척 그리웠던 가족들과 친구들의 응원하는 모습도 기억에 남고요. 아무래도 촬영 기간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고생했기 때문에 응원이 더 큰 힘이 되고,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무대가 끝나고 나서는 거의 오열하다시피 울 정도였죠.(웃음)



제 1회 기아자동차 세일즈 공모전 K-서포터즈

응모자격
전국 대학/대학원생
*개인 혹은 팀 단위 가능하며, 팀은 최대 4인

접수기간
2018. 3. 5 (월) ~ 2018. 4. 3 (화)

발표일정
2018. 4. 23 (월), 개별 통보

공모주제
기아자동차 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4가지 中 택1

자동차 구매프로그램	쉽고 알차게 우리차를 구매하는 방법은? (할부, 리스, 렌트, 배터리평생보증 등)
이종업체간 제휴 (콜라보레이션)	자동차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제조업?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볼까?
고객 체험강화	더 많은 고객이 우리차를 체험하는 방법! (부담제로 전시장 방문, 시승이벤트 등)
기아자동차 재구매 유도	평생 우리차만 사게할 순 없을까? (기아자동차 평생고객 만들기 등)

평가기준
참신성 30% + 실현가능성 30% + 판매기여도 40%

접수방법
온라인 지원 (bit.ly/K-서포터즈지원서)

제출규격
파워포인트 30매 이내 자유롭게 작성,
전체 요약 1페이지 필수 (ppt, pdf파일)

수상혜택
총 7팀, 총 상금 700만원

구분	장학금 지원	
대상	1팀	300만원
최우수상	2팀	100만원
우수상	4팀	50만원
⊕ 멘토링	수상팀 대상 기아자동차 현업선배들의 멘토링 제공	

* 장학금 제세공과금 당사 부담
*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문의처
운영사무국 02-735-6199

공모전이 끝나더라도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계속됩니다

상시 아이디어 공모 접수 (k-sales@kia.com)

시 상 : 우수 아이디어 채택시 50만원 장학금 지원

KIA
The Power to Surprise

03

걸그룹 '타이니지'로도 활동했었는데요. 탈퇴 이후, 어떻게 새로운 꿈을 찾게 됐나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뭘까'라는 생각에 힘들었어요.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 저를 일으켜준 게 연기예요. 타이니지로 데뷔하기 직전 아역 활동을 했었거든요. 연기에 대한 갈증도 있었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니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조급해하기보다 차근차근 도전하기로 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연기를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04

긍정의 힘이 엿보여요. 스스로 생각하는 명지씨의 장점은 뭘까요?

어릴 때 외모를 지적하는 댓글을 보고 상처받았던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냥 섭섭하기만 했는데, 내가 시작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청자에게 철저히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결심을 하고, 식단 관리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음, 목표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될 때까지 하는 것. 한다면 하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일까요…?!

신한 두드림과 함께하는 OZ START業

신한은행 ARCON 문화예술 사회공헌 네트워크

어서와, 창업은 처음이지?

Digital·Life·School 1기 교육생 모집

2018 2.26 ~3.18

BENEFIT

- 우수팀 총 상금 1,000만원
-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
- 교육비 전액 무료
- 신한은행 디지털 인프라 지원
- 전문가 멘토링

교육과정

PBL(Project-based Learning)
12주 팀프로젝트와 멘토링
(전일 과정)

교육장소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
신한 두드림 스페이스

모집대상

-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
- 아이디어의 사업화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팀
- 의 · 식 · 주 혁신을 위한 제품의 시장테스트가 필요한 사람

모집일정

서류접수
2018. 2.26~3.18

면접일정
2018. 3.21
(서류합격자 개별 연락)

서류합격 발표
2018. 3.19

최종 발표
2018. 3.23

교육일정
2018. 3.28~6.20

지원방법 및 문의

언더스탠드에비뉴 홈페이지
www.understandavenue.com

02-2135-8184
digitallifeschool@gmail.com

05

취미도 취향도 다양해요. 앞으로 어떤 작품, 어떤 역할을 맡고 싶어요?

전 스탠리 큐브릭 감독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세련된 미장센을 통해서 메시지들이 은은하게 전해지거든요. 맡고 싶은 캐릭터는 <케빈에 대하여>, <블루 재스민>, <라비 앙 로즈>의 주인공처럼 나약함과 강인함이 공존하는 인물들이에요. <써니>의 '수지'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걸 크러시한 캐릭터도 맡아보고 싶어요. 이런 캐릭터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06

또래에 비해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학교가 남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전 학창 시절을 제대로 못 즐긴 게 한이에요. 고등학생 때 수학여행 한 번 못 가봤거든요. 대학생이 되자마자 친구들과 처음으로 여행도 가보고, 자주 못 먹은 급식 대신 학식도 애용하고, 방학 때는 동기들과 다 같이 연습해서 공연을 올리기도 했죠. 이렇게 소소한 학교생활을 좀 더 많이 많이 즐기고 싶어요.

유니파일러 10TH

대학생 트렌드 전문가 그룹

~2018 03 11 SUN

STEP_01 트렌드 연구 기초 이론 교육

>> 트렌드의 개념과 진단 방법 배우고 익히기

3월 19일	트렌드의 정의와 이해
3월 26일	트렌드 예측 및 진단 방법
4월 02일	트렌드 진단 리서치 과정 및 트렌드 리포트(TR) 작성법 소개

STEP_02 트렌드 연구 심화 실습

>> 현장의 생생한 트렌드를 발견하고 정리하며 감각 키우기

4월 16일	1차 개인 TR 발표·토론 & 미디어 이용 트렌드 탐색 실습
4월 23일	2차 개인 TR 발표·토론
4월 30일	트렌드 현장 체험
5월 14일	3차 개인 TR 발표·토론
5월 21일	4차 개인 TR 발표·토론 & 트렌드 간담회 진행 방법 소개
5월 28일	트렌드 간담회 체험
6월 04일	5차 개인 TR 발표·토론 & 트렌드 키워드 도출 방법 소개

STEP_03 20대 트렌드 키워드 도출

>> 유니파일러 10기만의 20대 트렌드 키워드 완성하기

6월 18일	20대 트렌드 키워드 도출 워크숍
6월 25일	20대 트렌드 키워드 발표 및 수료식

* 프로그램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모집개요

참가자격 20대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 국내 2년제 이상 대학 재·휴학생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선발인원 00명

교육일정 매주 월요일 16:00 - 18:00 (총 12주차 과정)

참가혜택

1. 수료조건 충족 시 주니어 트렌드 전문가 수료증 발급
2. 우수활동자에 한해 대학내일 인턴 지원 시 가산점 부여
3. 대학내일20대연구소 정기발간 트렌드 도서 집필진 등재
4. 원고료 및 미션 우수 팀·개인 시상금 지급
5. 대학내일 문화행사 및 이벤트 초대

선발 기간 및 일정

모집기간 2018. 3. 11(일) PM 23:59까지

서류발표 2018. 3. 14(수)

면접일시 2018. 3. 16(금) *면접확인서 발급 가능

최종발표 2018. 3. 16(금) 홈페이지 확인

지원방법 및 문의

지원방법 (주)대학내일 홈페이지 corp.univ.me 접속 후 좌측 채용 > 채용공고 메뉴에서 온라인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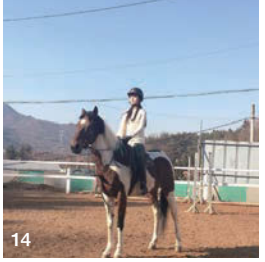
문의방법 (주)대학내일 홈페이지 corp.univ.me 접속 후 좌측 채용 > 채용 1:1 문의 게시판 활용

대학내일20대연구소 대학내일

14
COVER MODEL STORY
이주의 모델 명지씨의
휴대폰 속 일상 사진들

15
READER'S LETTER

16
주간쥽쥽
MUSIC VIDEO <Idle Town> + PLACE
<동인천> + MAGAZINE <모노클> +
MOVIE <리틀 포레스트>



CONTENTS

No.841 2018.3.5~2018.3.11

SPECIAL

18
20'S VOICE
네가 쓰레기인 거 아는데도

20
SMALL MIND
복세편살은 아무나 하나

22
10만원이 생긴다면
군주 파티, 입대가 오 일 남았다

24
CULTURE GUIDE
BOOK 『일하는 여자들』

26
BAMBOO FOREST
#댕냴대숲 #적정거리유지 #친함_아니고_무례함

36
CAMPUS
3월에 CC 하면 망하는 이유

38
HOW TO
동아리 고르는 법 7가지

40
THINK
나 정도면 괜찮잖아?
하는 마음으로 살기

42
PUZZLE
기명균의 낱말퍼즐

28

나는 이렇게 망했다

01. 술 때문에 망함
02. CC 망함
03. 수업 망함
04. 자취 망함
05. 팔랑귀라 망함
06. 인간관계 망함
07. 돈 관리 망함

50
WHAT'S NEW
이주의 주목할 만한 소식들

51
OUTCAMPUS
새학기라 의욕 불타는 너를 위한
대외활동 BEST 4

CONTENTS TEAM

팀장 홍승우 부팀장 정문정

MAGAZINE

파트장 김신지 summer@univ.me
에디터 김혜원 hyewon@univ.me
권혜은 hyen@univ.me
서재경 suhjk@univ.me
교정교열 차은선
디자인 팀장 김해정 kiko@univ.me
디자인 남미가 miga@univ.me

DIGITAL MEDIA

파트장 정문정 moon@univ.me
에디터 김슬 dew@univ.me
김준용 dragon@univ.me
박현지 laraturer@univ.me
배다솜 sombang@univ.me
디자인 디렉터 윤희선 yoon@univ.me
디자인 김지현 uujuinn@univ.me
이승은 lidy@univ.me
김은미 mongmiggu@univ.me
조범식 booomsik@univ.me

MEDIA COMMUNICATION

파트장 홍승우 sseung@univ.me
수석에디터 전아론 aron@univ.me
책임에디터 김효은 hihyo@univ.me
조옹재 woongja1@univ.me
에디터 백수빈 bin@univ.me
강민상 ninsan@univ.me
김상구 nine@univ.me

BRAND JOURNALISM

파트장 김초롱 rong@univ.me
책임에디터 주태환 joo@univ.me
박정욱 wook@univ.me
에디터 조아라 ahrajo@univ.me
기명균 kikiki@univ.me
김수현 soo@univ.me
유희수 hsyu@univ.me
노치원 kingofamonkey@univ.me

STAFF

발행·편집 김영훈 batcong@univ.me 공동 대표 유영기 김영훈 부대표 이태영 이사 김창배 고문 박재항

마케팅커뮤니케이션 1본부

본부장 김부진

마케팅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조인천 책임매니저 신예지 이혜민
매니저 손유리 조하니 김지영 사원 권소영 안예지 조지은

마케팅커뮤니케이션 2팀

팀장 김우준 파트장 김영현 이재우
책임매니저 이지연 유호정 홍보미 육혜진 권오태 김민정
매니저 백소연 한은지 이인재 사원 김준호

마케팅커뮤니케이션 3팀

팀장 안길상 파트장 조소라
책임매니저 김동하 양현정 홍보람 매니저 한희진 이혜인 신호영

마케팅커뮤니케이션 4팀

팀장 김지혜 파트장 김영수 문왕기
책임매니저 신현정 허이슬 김예림 박미소 정영수
매니저 송태광 에디터 정혁준

마케팅커뮤니케이션 2본부

본부장 박배길 수석 황정은

마케팅커뮤니케이션 5팀

수석 김효선 임영화 책임매니저 박종남 이은지
매니저 김규태 김다은 이상복 김유진 탕예 정유진 한문규 황주랑
사원 장지

마케팅커뮤니케이션 6팀

팀장 이수이 매니저 배용근 강지인 사원 정규홍

마케팅커뮤니케이션 7팀

팀장 탁귀영 수석 박지호 매니저 봉장종 강혜빈 임은비 최진성
사원 양제희 최정인

채용마케팅본부

본부장 김종원 수석에디터 이정섭 책임매니저 최규성

채용마케팅1팀

팀장 유제문 수석 홍성우
매니저 김형민 서창호 정희성 이성훈 박연우
사원 이종혁 이윤성 이정영

채용마케팅2팀

팀장 유진혁 수석 박준하 매니저 이준호 정기현 안창민 허정남
사원 가민희 윤길주 김용빈 김도희

채용마케팅3팀

파트장 신재영 매니저 이지현 최승현 사원 조은솔

디지털커뮤니케이션 본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김범준 책임매니저 남승혁 김현주
매니저 김찬우 김동규 고민지 이아름 사원 송재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2팀

팀장 차정기 책임매니저 강희은 권예빈 매니저 김민주 서해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3팀

팀장 방수진 수석 이진희 책임매니저 이교영 홍새봄
매니저 김애리 박소영 신예지 이나윤

디지털콘텐츠팀

팀장 김현승 책임매니저 양준호 이연제
매니저 정진복 서준원 이경민 최현정 한동주
사원 김소영 설다운 박지원

디지털디자인팀

팀장 이혜정 책임매니저 박지성
매니저 조현상 임다정 오은정 전계은 김희재

유스마케팅팀

팀장 이성진 책임매니저 양상범 박정은 명범준
매니저 박상현 최은원 권민희 정세미
사원 최창희 김나래 김나영 신은지

공공커뮤니케이션팀

팀장 박강두 수석 진우경 강국현 책임매니저 이재혁
매니저 송정훈 정혜인 이재은 사원 김지수 김하영 윤철한

20대연구소

소장 김영기 수석연구원 문송이 박진수 호영성
책임연구원 송혜윤 김금희 연구원 이재흔 정은미 지승현 장지성
에디터 남민희 사원 김다희

크리에이티브센터

센터장 조민형 파트장 정은우 전단비 수석 이윤경
매니저 김소연 신재인 사원 최웅진 홍서연

이비즈(E-BIZ)팀

팀장 권판진 수석 임남훈 김부록 하윤희 심재운 김진의
책임매니저 고은영 강주빈 김상호 이은주 매니저 김가언 박혜진 조이슬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김운선 매니저 이승훈

경영지원팀

수석 김소연 윤수정 책임매니저 김주은

인재경영팀

팀장 민정규 책임매니저 김예지 김이슬 매니저 이상엽

인턴

권아름 권은빈 김나린 김민경 김민기 김소희 박민지 손경민
신하영 유송빈 윤어진 이다빈 이성호 이지선 정수지 정장희
최은유 최현정 홍선아 황기연 황현아 황현정

인쇄 프린피아 대표번호 02-735-3800 팩스 02-735-0005 배포문의 02-6925-0704
등록번호 서울다 05909 등록일 1999년 7월 9일 주소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43. 인성빌딩
(주)대학내일 홈페이지 http://univ20.com 20대 연구소 홈페이지 www.20slab.org

꼼꼼하게 다이어리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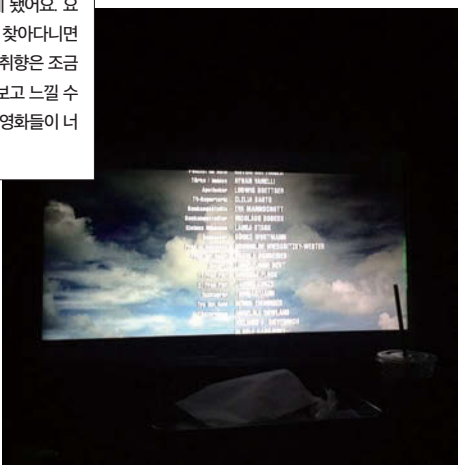
초등학생 때부터 무언가 쓰는 걸 좋아했어요. 감명 깊게 읽은 책에 관한 감상문을 쓰기도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글을 쓰기도 해요. 다이어리는 14살에 연습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 달의 목표와 버킷 리스트들을 적고 지워나가는데 쓰죠. 목표까지 차근차근 잘 나아가고 있다는 단단함을 줘서 좋아요.

<태왕사신기>로 영업당한 승마의 매력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만큼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중에서도 '승마'는 <태왕사신기>를 보고 흥미를 갖게 되었죠. 정말 운이 좋게 학교 방과 후 수업이 있어 시작했고요. 한껏 달리고 나면 마음이 홀가분해져요. 꼭 승마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스포츠를 찾는 건 미용에도, 마음에도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 말을 탈 기회가 생긴다면 겁내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적극 추천합니다!

취향은 독립영화

중학생 때 영화에 꽂혀서 닥치는 대로 영화를 봤었어요. 잠에서 깨자마자 영화를 보기 시작해서 잠들기 직전 까지 볼 때도 있었죠. 그 이후로 영화가 제 안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어요. 요즘도 여유가 생기면 독립영화관을 찾아다니면서 혼자 영화 보는 걸 즐겨요. 영화 취향은 조금 마니아 같아요. 독립영화관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독특하고 다양한 감성이 담긴 영화들이 너무 좋아요.



명지씨의 휴대폰 속 일상 사진들

Myongji's Daily Life

가끔은 혼자서 전시를!

도예를 하셨던 엄마, 미술을 전공한 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좋은 전시를 많이 봤어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무료로 좋은 전시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기회가 되면 혼자서 전시를 보러 가고는 해요. 아래의 사진은 인상 깊었던 <쿠사마 야요이> 전과 <플라스틱 판타스틱> 전이에요.

꼰대에 관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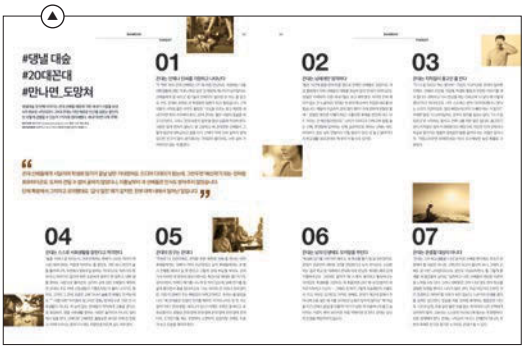
김경아

어느 무리에 가도 꼰대는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두 알지만 대놓고 말할 순 없었죠. <#댕낼대숲>에서 누구나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꼰대의 특징을 절묘하게 꼽아줘서 속 시원했습니다. 꼰대에 관한 고찰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꼰대는 존중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가장 공감 됐습니다. 꼰대는 꼰대일 뿐이잖아요? 새내기가 이 글을 읽는다면 꼰대들을 감별하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글을 읽다가 한 가지라도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당신은 꼰대입니다!

쫄보 인생을 향한 위로

유연지

<소심이의 소심한 생활> 정말 공감됐어요! 정글 같은 대학 생활에서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쫄보인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1학기 개강은 특히나 새 인물들의 출현이 많아 더 정글스러워질 텐데, 올해도 댕낼 보면서 힘내보아요.. <어서 와, 20대는 처음이지> 기사도 좋았어요! 문화생활 좋아하는 1인으로서 익숙해 반가운 이야기도 있었고, 새로운 정보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쫄보 인생을 위로하며 유흥의 저변을 넓혀보겠어요!



지금 아는 걸 새내기 때도 알았더라면

김경란

대학내일 애독자입니다ㅎㅎ 방학 내내 대학내일 안나와서 심심했는데 이번에 새내기 특집호 나와서 순식간에 다 읽었습니다! 저는 <어서 와, 20대는 처음이지> 기사가 좋았어요! 그중에서도 숙박 편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벌써 화석 취급 받는 4학년이라 게스트하우스도 가보고 모텔, 호텔 등 숙박을 여러 군데서 해보았지만, 새내기 때의 저는 이런 걸 하나도 몰라서 여행 갈 때 애먹었어요ㅠ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대학내일에서 보여준다면 새내기뿐만 아니라 숙박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대학내일 정말 재밌게 보고 있고, 알차고 유익한 내용도 많아진 것 같아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 파이팅!

낡은 서울의 재발견

김원희

동묘의 옷값이 저렴하다는 소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저렴해도 만원 단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이 생긴다면> 기사에서 에디터가 3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옷과 가방, 액세서리 등을 구매한 것을 보고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놀랐습니다. 동묘에 관심이 없던 제게 동묘라는 새로운 쇼핑 선택지가 생긴 것 같아요. 또한 동묘 말고도 시계 골목, 광장시장, 헌책방 거리, 풍물시장 등 서울에 다양한 볼거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에디터님! 다음에는 저도 한번 열심히 10만원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 코너에 지원해보려고요! 대학내일 정말 유익해요!♥

대학내일에서 독자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좋았던 점과 인상 깊었던 기사, 앞으로 만나고 싶은 기사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독자 의견으로 채택되어 잡지에 실린 세 분께 <모네, 빛을 그리다展 시즌 II > 관람권(1인 2매)을 드립니다.

메일 readers@univ.me * 본문에 이름/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동경과 열폭 사이

열여덟 되던 해 첫 카메라를 손에 쥐던 날,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내 작은 동네에서 연신 셔터를 눌러대며 낯선 여행자처럼 굴곤 했다. 우연히 알게 된 한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그때의 봄을 추억했다. 서툰 편집 실력으로 조악하기 그지없던 내 결과물과는 달리 가히 대단한 실력이라 느껴지는 영상미에 미칠 듯 부러움이 일었다. 며칠 전엔 곧 중학생이 되는 사촌 동생이 처음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아, 진짜 3월이 돌아왔구나. 나는 소년 코난의 재능이 부러운 걸까, 아니면 어린 동생의 출발선이 부러운 걸까. 하여간 내 주변에는 늘 부러운 것투성이라. **최은유**

MUSIC VIDEO Conan Gray <Idle Town>

PLACE 동인천

여행의 기분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 멀리 나간 것도 아닌데 묘하게 여행 기분이 날 때가 있다. 지난 주말의 동인천 산책이 그랬다. 작고 귀여운 집이 많은 골목을 보고 충동적으로 차에서 내렸는데, 오랜만에 날씨가 좋네? 아무리 바빠도 이런 날 산책 안 하면 바보다 싶어 걷기 시작했다. 근사한 물건이 가득한 소품 가게는 하필 내부 수리 중이었고, 이 동네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만두도 먹지 못했지만, 애인이 핫초코를 홀짝이며 "우리 오늘 여행 온 것 같지 않아?"라고 말해줘서, 떠나지 못해 뾰로통했던 마음이 스륵 녹았다. **김혜원**

Weekly Pick Up

"나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가봐"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여겨본 적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라는 타이틀이 힘을 발휘하는 순간을 종종 경험한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가 대항 경기가 있을 때는 더더욱. 주말이면 점심 먹을 때가 돼야 일어나는 내가 컬링 결승전 한 시간 전에 눈이 절로 떠진 걸 보면 신기할 뿐이다. 스웨덴에 기권을 선언하며 눈물을 쏟던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의 모습은 또 어찌나 짠하던지. 나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구나 싶었다. <모노클> 3월호 한국 특별판 발행 소식도 그런 이유로 그냥 지나치지 못했나보다. 소장해뒀다가 가끔 꺼내 읽어봐야지. **서재경**

MAGAZINE <모노클> 2018년 03월호

여행하라. 시를 쓰라. 당신만의 일을 시작하라.
좀 어슬렁거려도 되고 분명한 목표가
없어 보이는 것에 시간을 내도 좋다. (중략)
단지 당신 자신에게 시간을 좀 줘라.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과정을 위해 사는 법을
다시 배워라. - 샤샤 코헨

좀 어슬렁거려도 되는 시간

평창 동계 올림픽이 막을 내리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24일, 미국의 전 피겨 싱글 국가대표인 샤샤 코헨이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의 일부다. 이 글은 치열했던 올림픽 이후, 이른 나이에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젊은 선수들을 위해 쓴 것이지만, 읽다 보면 어쩐지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 같기도 하다.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온 나머지 그 이후의 삶을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글. 어쩌면 12년간의 입시를 끝낸 스무 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 글. 좀 어슬렁거려도 되고, 쓸데없어 보이는 일에 시간을 써도 좋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좀 더 시간을 주어도 좋다. '과정'을 위해 사는 법을 다시 배운다는 것은 그런 뜻이니까. **김신지**

MOVIE <리틀 포레스트>

치유의 맛이 필요할 때

작은 영화관에는 관객들을 위한 서고가 있었다. 무료함에 만화책을 빼어 들었다. 『리틀 포레스트』. 그날 봤던 영화는 기억나지 않아도, 영화를 본 후 다시 책을 펼쳤던 일만은 선명하다. 도시에 지친 주인공이 시골집으로 돌아와, 농사를 지어 밥을 먹는다. 임순례 감독은 일본 원작 만화의 담백한 이야기를 한국으로 가져왔다. 시골 풍경은 정겨워지고 익숙한 음식들로 바뀌었지만, 풋풋한 채소를 와구와구 먹고 싶어지는 감각은 여전하다. 문득 이 식욕은 치이고 졸아붙은 마음에서 온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권혜은**

GREAT BRITAIN, GREAT U

제13회 영국유학박람회

국내 최대

- 영국 명문대/아트유학/어학연수 진학 정보
- 현지 입학사정관 1:1 상담
- 박람회 한정! 역대급 할인/경품 혜택

서울 2018.03.10(토) ~11(일) 코엑스

부산 2018.03.17(토) 벡스코

주최 | ed:m 유학센터

후원 | ENGLISH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ITISH AIRWAYS · mastercard · 신한카드 · IBK기업은행

---

20 대학내일

+ 독자 의견 보내고 선물 받기!

Reader's Letter

이번 호를 읽고 좋았던 점과 인상 깊었던 기사 등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지면에 의견이 실린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readers@univ.me

※ 본문에 이름/주소/연락처 기재

+ ₩100,000 글솜씨 뽐내고 원고료 받기!

20's Voice

20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원고지 10매 내외의 에세이를 보내주세요. 글이 실린 분들께 원고료 10만원을 드립니다.

readers@univ.me

※ 본문에 이름/주소/연락처 기재

+ 퍼즐 풀고 신간 받기!

기명균의 낱말 퍼즐

낱말 퍼즐을 풀고 본인 계정 인스타그램에 인증 샷을 올려주시면, 매주 추첨을 통해 신간을 보내드립니다.

instagram으로 참여

#대학내일 #(책 제목) 해시태그 필수

네가 쓰레기인 거 아는데도

구차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건 진심뿐이었다.

WRITER 백장미 binsoo420@naver.com
나를 많이 사랑해서 남도 자주 많이 사랑합니다

어떻게 복수할까 며칠을 고민했다. 온갖 모진 말(쌍욕)을 준비해 갈까, 아침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뺨을 후려칠까, 인터넷에 폭로 글을 올릴까. 다섯 달 동안 만난 그에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세 명이나 있었단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스물여덟 해 동안 별별 나쁜 연애를 해봤지만, 이번이 최악이었다.

그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짐작은 했었다. 만나지 않는 날엔 연락이 잘 안 됐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자주 했다. 근데 좋아해서 내가 모른 척했다. 어쩌다 물증을 손에 넣었을 때, 손이 덜덜 떨렸다. 예상했다 해도, 두 눈으로 확인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내가 네 명 중 한 명이라고? 너 연기자야? 내게 했던 말들은 뭐야? 그 눈빛은?' 할 수 있는 건 좋았던 순간을 되새기며 상처를 후벼 파는 것뿐이었다. 당장 그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지만, 전화로 간단히 끝내는 게 성에 차지 않았다. 나는 그를 만나기로 한 날까지 아무 내색하지 않고 복수를 준비했다.

드디어 디데이. 뻔뻔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그에게 웃으며 낮은 어조로 말했다.

"사실 나 다 알고 있었어. 너 다른 여자들 만나는 거. 처음에는 화나고 속상해서 참을 수 없었어. 널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했어. 근데 있잖아, 나는 네 행동이 하나도 이해되지 않지만, 넌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결과적으로 나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한동안 따지고 때리고 몰아세우고 싶었는데, 그러면 정말 후련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런 일을 벌이면 그와의 또 다른 사건을 만드는 것이 되고, 기억은 진해져서 더 오래 남을 거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펑펑 주는 것도 내 마음에 흉터를 남기는 일이다.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내가 웃으며 얘기하자, 그는 잠깐 당황하더니 프로 쓰레기처럼 얘기하기 시작했다. '전여친에게 연락이 와서 잠깐 만났다. 미팅은 심심해서 나간 거였다. 난 그래도 네가 좋다.' 이런 식이었다. 나는 그가 그렇게 말할 걸 알고 있었다. 웃음이 났다. 그때 잘 지내라 단호하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면 깔끔했을 텐데. 나는 구구절절한 그의 얘기를 들으며 희망을 품었다 포기하기를 반복했다. 그날, 마지막으로 그에게 앞으로 나만 좋아해줄 수 있냐 물었다. 그는 망설였다. 그가 나쁜 놈인 걸 아는데도 내가 줄 수 있는 건 진심뿐이었다.

과거, 홧김에 센 척을 하거나 상대를 짓누르며 관계를 정리하면 늘 후회가 남았다. '그때 내가 화내지 않았다면 더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계속 만났다면 그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당시에는 다친 마음에 감정적으로 행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희미해진다.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서 다시 뚫고 나온다. 그런 순간마다 나는 번번이 무너졌었다. 그런 식의 후회를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번에도 구차하지만, 마지막까지 좋아하는 마음을 쥐어짜내 건네는 게 날 위한 방법이었다. 컨트롤할 수 없는 마음은 빨리 소진해버리는 게 유일한 답이니까.

며칠을 더 연락했지만, 그는 그대로였고 우리는 끝이 났다. 하지만 감정 앞에서 사람은 미련해서 나는 마음이 해질 때까지 진심을 주고도 많이 흔들렸다. 연락하고 싶고 보고 싶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달랬다. '만약 그를 계속 만난다고 치자. 올해 마지막 날 돌아봤을 때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을까? 곁에서 상처받으며 나를 학대하는 거잖아. 결정적으로 그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아침에 눈떠서 잠들기 전까지, 내 마음을 돌보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미친 사람처럼.

지난 명절, 나처럼 엉망진창 연애를 막 끝낸 친구와 바다 옆에 있는 절에 다녀왔다. 제발 온전한 연애를 하게 해달라고 종이에 소원을 쓴 후 볏짚에 매달았다. 사실 마음속으로 그의 앞길도 빌어줬다. 그가 제대로 누군가와 마음을 주고받는 방법을 알아 행복해지기를. 3월 1일, 절에서 소원 종이를 매단 볏짚을 태운다고 한다. 볏짚이 불타올라 사라지면, 우리는 더 편안해질 거다.

10만원이 생긴다면?

대학내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10만원이 생긴다면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어떤 이유로 어디에 쓰고 싶은지 '10만원 사용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계획이 신박할수록, 이유가 설득력 있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첨된 분께는 10만원을 드리고, 그 생생한 사용기를 지면에 싣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메일 magazine@univ.me
※ 제목에 [10만원] 포함
Ex.[10만원] 사용계획서 보냅니다!
※ 본문에 이름/학교/연락처 기재 필수

20 대학내일

대학내일이 매주 10만원을 쏜다!

₩100,000원

글 솜씨 뽐내고 원고료 받기!
20's Voice

20대라면 누구나 대학내일에 글을 기고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겪고 느낀 솔직한 이야기를 A4 1장(원고지 10매 이내) 분량으로 보내주세요. 지면에 글이 실린 분들께 원고료 10만원을 보내드립니다.

메일 magazine@univ.me
※ 본문에 이름/연락처 기재 필수

소심이의 소심한 생활

여러분,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삽시다.
누가 뭐라 건
내 길을 가면 돼요!
좋았어! 나도 이제
마이웨이로 살겠어.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미팅 안 하면 바보
동아리를 해야 인맥이 생겨
대학생활의 꽃 CC
복세편살…
복세편살…

어느새 대세를 따르고 있는 나.
대세
내 맘대로 했다가
후회하면 어떻게 하지?
남들 다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복세편살은 아무나 하나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는 문장을 네 글자로 줄인 말이다. 사자성어 같기도 하고 주문 같기도 한 신조어를 알게 된 건 작년 이맘때쯤. 친구는 비슷한 말로는 나씨나길(나는 x발 나의 길을 간다)이 있다며, 우리도 이렇게 남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살자고 했다. 그래! 복세편살, 나씨나길! 얼마나 멋진가.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내가 좋은 걸 선택하는 삶. 그리하여 야심차게 새로운 슬로건을 도입한 우리는 며칠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됐다. 복세편살의 DNA는 타고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소위 말하는 마이웨이의 삶을 살긴 어려워 보였다. 강연을 하거나 책을 쓰는 멋진 언니들은 소심한 우리와 성향이 너무나 달라서 롤 모델로 삼기에 부적절했다.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지만 너무 커서 내 방엔 안 들어가는 양문형 냉장고 같달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바로 그게 이 글을 쓰게 된 연유다. 소심하게 살며 여기저기 치이다 약간의 노하우를 습득했고, 요샌 마음이 꽤 편해졌는데, 그 과정을 공유해볼까 싶다(생존력이 낮은 소심이들은 이렇게라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챙겨야 한다!).

일단 앞서 말했듯 마이웨이의 삶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다. 대세를 거스르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대학생 때 꼭 해야 할 10가지' 같은 모범 답안은 무시한다고 쳐도. 모두가 동아리에 가입하고, 미팅에 나가며, 유럽 여행을 떠나는데, "나는 안 해"를 외치고 드러누워 잠이나 자기란 아무래도 힘들 것이다.

신입생 시절 나는 불안해하면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대세에 끌려다녔다(역시나!). 연극에 별 관심 없었지만 같은 무리가 된 친구들이 다들 한다기에 연극 동아리에 가입했고, 일찌감치 수업이 끝나 할 일은 없지만 동기들이 집에 안 가기에 과실 소파에 앉아 시간을 죽였다. 과 엠티, 동기 엠티, 소모임 엠티 등등 썩 내키지 않는 행사에도 꼬박꼬박 나갔다. 대세에 휩쓸리는 거 말고는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솔직히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 자체가 없었다. 이십 년 동안 별생각 없이 수능 공부만 했으므로 나도 나를 잘 몰랐던 거다.

마음을 홀가분하게 만드는 주문

> "인생은 쇼핑과 같다. 하면 할수록 성공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한 선택으로 채운 대학 생활엔 당연하게도 후회스러운 점이 많다. 평균을 내보자면, 정말로 적성에 맞지 않거나, 내 인생에 쌀 한 톨만큼도 도움이 되지 못한 것들이 8할, 별생각 없이 했는데 의외로 좋았던 게 2할 정도. 불필요한 8할 주변을 기웃거리느라 때를 놓쳐서 영영 하지 못하게 된 일들도 있다(지금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과 동기들이랑 어울리려고 과방에 버린 시간에 연애나 한 번 더 했어야 했다).

인생에 어떤 에피소드를 들일 것인지 선택하는 일은 쇼핑과 비슷해서, 하면 할수록 나만의 기준이 견고해지고, 그에 따라 성공률도 높아진다. 엄마가 사 준 옷만 입던 아이가 수많은 실패 끝에 '나는 키가 크니까 총장이 최소 87cm 이상인 옷만 입을 수 있어' 같은 기준을 세운 것처럼. 대학 생활의 8할을 시간 낭비로 흘려보낸 덕에, 어떤 일을 할까 말까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남의 말이 아닌 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됐다. 어떤 에피소드가 날 행복하게 해줄지는 나만 아는 것이니까.

영화처럼 과거로 돌아가 스무 살의 나를 도울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아직 모르는 그 아이는 어차피 3년은 헤매게 될 테니… 뭘 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단 마음으로 지내라고 해야 하나? 아니다. 나만의 기준을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기준이 없을 때는 누구나 남의 말에 휩쓸리게 된다고. 그러니 헛짓하느라 시간 낭비한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말라고 도닥여 주는 게 낫겠다. 그것도 아니면, 지도 앱의 추천 경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모든 경로를 직접 짜서 실험해본다는 친구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하는 경로가 아니라 창밖 풍경이 멋진 경로를 찾고 싶다던 친구처럼, 천천히 너만의 경로를 찾아보라고. 이제 곧 봄이니 조금 헤매도 지각해도 괜찮다고 말해줘야겠다.

WRITER 김혜원 hyewon@univ.me **ILLUSTRATOR** liz

힙과 눈물의 군주 파티

입대가 오… 오 일 남았다

2월 22일 오전 11시 37분, 나는 병무청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귀하는 2018년 03월 05일 14:00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시면 됩니다." 뜬금없이 11일 뒤 입ㄷ… 입대… 입대라니…! 정신이 혼미해지려던 찰나, 대학내일이 10만원을 쏠 테니 어디 한번 신박하게 써보라고 한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누구보다 Hip하고 Hop한 입대 준비를 한다.

WRITER 김경욱 **INTERN** 최은유 mataphor@univ.me

01

핵인싸 필수템 우표 50장

오후 2시. 입대하는 사람들 모두가 준비하는 우표. 고미디(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핵인싸 랭킹 5위권에 항상 드는 나는 우표 50장을 샀다. 편지 보낼 모든 사람들에게 답장을 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나도 안다. 50장이라는 우표의 개수에 우체국 직원조차 나에게 "편지 한 통에 우표 한 장 쓰는 거 아시죠?" 라고 물어보셨다. 내가 너무 적게 사는 걸까? 사진을 찍어주는 친구도 날 이상하게 쳐다본다. 입대 전에 사비로 더 사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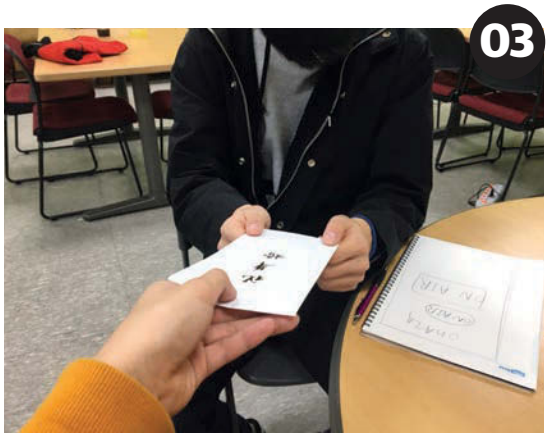
우표 50장 ₩21000

02

예비 군인 착붙템 모자

오후 3시. 평소 모자를 쓸 바엔 머리를 감겠다는 의지로 꾸역꾸역 다녔지만, 군대에 가면 얄짤 없다. 군인은 추운 겨울에 머리털이 없어 체온 조절이 불가능하고, 더운 여름엔 두피를 보호하기 위해(선크림을 바를 순 없다) 모자를 써야 한다. 군인의 두상을 가리기 위해 동대문에서 모자를 샀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나에게 어울리는 모자가 없다. 킹갓제너럴 인싸인 나를 감당할 착붙템은 동대문에 존재하지 않는 걸까? 20개쯤 써 볼 무렵 주인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빅 사이즈 모자를 추천해주셨다.

빅 사이즈 모자 ₩23000



03

옛다 김경욱 장학금

오후 4시 반. 군주(군대에 가는 사람들이 마시는 술. 생일주와 유사하다) 파티의 멤버를 구하기 위해 전화를 걸던 중 가장 친한 동생이 토익 시험 준비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데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친구라 도와주고 싶어졌다. 원래 남 돈으로 생색 내는 게 제일 즐거운 법! 학교에 있는 동생에게 토익 시험비를 지원해줬다. 10만원 중 반이나 되는 돈이지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바쁜데 부른다고 틱틱거리던 동생은 돈을 받은 자리에서 거수경례를 보여줬다. "충성 충성! 꼭 990점 받겠습니다!" 그러더니 술자리에 참여하겠다며 친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동생아, 공부는 안 하니? 얜 토익 글러 먹은 것 같다.

토익 응시료 ₩44500 용돈 ₩500

04 술찌를 위한 여명 한 캔

파티 직전. 나는 내가 술찌(술 찌랭이의 준말)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평소의 주량으론 대규모 파티를 감당하지 못할 터. 비싸서, 한약 맛이 싫어서, 늘어날 주량을 감당하지 못해서 평소에 못 마시는 '여명808'을 샀다. 808번의 실험 끝에 탄생한 숙취해소제 여명808의 오랜 기다림은 마치 나의 군 복무 기간과 같아 보인다. 오늘 나는 여명과 함께 안암동5가 최고 파티플래너로서 체면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그날 나는 과방으로 가는 계단에서 발견되었고 아침저녁 내리 쌀국수만 먹으며 해장했다.)

여명808 ₩5500

+ 번외 술자리 이야기

파티는 30분 만에 아.비.규.환이 되었다. 소주 2잔, 사이다 1잔의 황금 비율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다. 내가 의도한 파티는 미국 하이틴 영화에 나오는 프롬 파티였지만 잠깐 들른 친구 말에 의하면 모두가 <워킹데드>의 좀비처럼 제대로 걷질 못했다고 한다. 호기롭게 골든벨을 울리러 계산대에 갔더니 사장님께서 내 카드를 받지 않으셨다. 사장님은 05학번 같은 과 선배님이 지나가다 결제해주셨다고 말씀하셨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꼭 선배님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핫식스 ₩1200 허쉬 밀크 초콜릿 ₩1500
청포도 젤리 ₩1200 젤리데이 포도 ₩1000

05 마지막 사제 쇼핑, 군주 재료

파티 가기 진짜 최종 직전.alcohol 나는 일반적인 군주를 마시기 싫어졌다. 맛있는 것만 먹고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친구 손가락 맛 술을 마실 순 없다. 편의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4개를 샀다. 오늘의 장학생은 군주를 타자마자 조교 톤으로 "군인은 젤리를 음미하지 않습니다!"를 외쳤다. 알코올 덕분인지 나와 동생은 감정이입하며 역할극을 시작했다(참고로 둘 다 미필이다). 생긴 건 정말 맛없어 보이지만 역시 맛있는 것들은 섞으면 더 맛있다.

이 글이 발행될 즈음… 난 훈련소에 있겠지…? 나도 3년 전엔 새내기였는데 이제는 군대 새내기라니…. 사회의 친구들아, 편지 많이 써줘야 해?

-31번째 군주 파티를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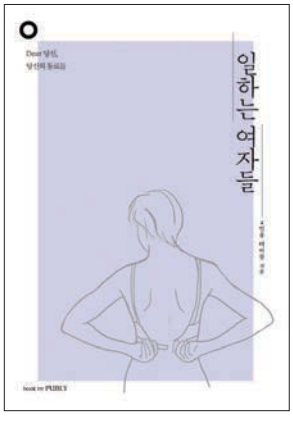
어느 날 갑자기 10만원이 생긴다면?

다음주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10만원이 생긴다면 어떤 이유로, 어디에 쓰고 싶은지 magazine@univ.me 로 '10만원 사용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계획이 신박할수록, 이유가 설득력 있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첨된 분께는 10만원을 드리고, 그 생생한 사용기를 지면에 싣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Dear 여성,
그리고
여성 동료들

BOOK

『일하는 여자들』



4인용 테이블 지음,
book by PUBLY,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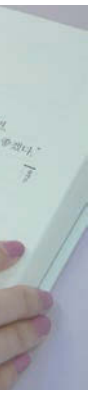
"젊은 남성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선배 남성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서사는 차고 넘치도록 많다. 성공한 여성의 사례를 보거나 듣는 게 같은 여성에게는 정말 중요하다. 이런 책 어디 없을까?"

작년 봄, 구독하듯 팔로우하고 있던 황효진 에디터의 SNS에 올라온 글이다. 소리 없이 '격공' 하고 관심글로 저장해두었다. 하트를 누른 손가락은 내 것 말고도 여럿이었으나, 이상하게도 '이런 책'은 쉽게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퍼플리(publy.co)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펀딩을 보게 된 건 여름 즈음이었다. 황효진 에디터, 장경진 에디터, 윤이나 작가, 정명희 디자이너가 결성한 프로젝트 크리에이티브 팀 '4인용 테이블'의 첫 작업물이라고 했다. 「매거진 T」와 「아이즈」에서 직장 동료 사이로 만난 네 사람이 각 분야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취재한 인터뷰집이었다. '아, 4인용테이블은 아예 '이런 책'을 직접 만들어 버리려는 속셈이구나!' 기분 좋은 깨달음처럼, 펀딩은 목표 금액의 3.3배를 모으며 호쾌하게 달성되었다. 나 역시 유쾌하게 결제하고, 페이

지를 넘겼다.
졸업한 뒤 거의 바로 취업했다. 스물셋. 먹고사는 일의 치사함 따위는 잘 몰랐던 나이였다. 하지만 순진했던 내 귀에도 일그러진 말들은 어김없이 들려왔다. "비슷한 능력이면 남자를 뽑는 게 낫지.", "남자들은 이 월급 가지고는 오래 못 다니지." 차마 묻지 못한 질문들도 늘어갔다. '왜 저 여성 지원자에게는 술 잘 먹냐고 묻지 않았어요? 왜 여성 사원에게만 결혼할 남자친구 있는지 떠보는 거예요? 왜 여자들은 집안의 가장이 되면 안 돼요? 왜 저 선배는 임신했다고 구박

> 책을 펼치자마자 한 일은 윤이나 작가가 쓴 서문을 곱씹는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아니 5년 후에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삶의 고비마다 지금의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을까?"



덩어리 취급을 받아야 하죠? 왜 능력에 관계없이 언제나 결정권자는 계속 남자예요?' 그나마 여성들이 많다는 문화계, 출판계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답답했지만 침묵했다. 버티는 일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만두면 무얼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등을 보며 따라 걸을 만한 여성 선배들은 어느새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일하는 여자들』에는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선배들이 꾸준히 분투해온 흔적이 빼곡했다.
영화 저널리스트 백은하, 일러스트레이터 임진아, 작가 최지은, 영화감독 윤가은, 「GQ」 에디터 손기은 등 11명의 선배들은 먼저 했던 고민을 들려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알려주고, 목소리를 내라고 용기를 북돋워주었다.
2018년 1월, 퍼블리와 출판사 미래엔과의 제휴로 『일하는 여자들』을 지면으로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종이책에 맞게, 디지털 판에서는 볼 수 없던 인터뷰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일하는 여자들의 물건' 페이지를 통해, 그들의 발자취를 시각적으로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책을 펼치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윤이나 작가가 쓴 서문을 곱씹는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아니 5년 후에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삶의 고비마다 지금의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을까?" 책을 읽으며 내내, 어쩌면 다 읽고 나서도, '일하는 여자들'이라면 평생 해야 할 고민이겠지. 그리하여 미래의 일하는 여자들, 20대 여성들도 이 질문 같은 책을 함께 읽고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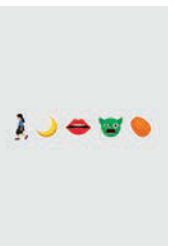
EDITOR 권혜은 hyen@univ.me

일하는 여자들의 삶을 더 알고 싶다면 +

NETFLIX <마드리드 모던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문직 여성의 삶은 녹록하지 않다. 1920년대 스페인 마드리드도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다. 여성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은 시기, 여성의 위치는 남성의 액세서리 정도였다. 그 속에서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려 애쓰는 통신회사 교환원들의 이야기다.

ALBUM <수연>



인디밴드 만쥬한봉지의 정규 2집 앨범인 <수연>. 만 29살 계약직 여성 김수연의 일상을 그린다. 일과 자존감, 연애, 꿈 등 여성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온 이야기들로 채웠다. '듣는 뮤지컬'을 모티프로 제작된 앨범의 첫 트랙부터 끝까지 듣고 나면, 평범한 한국 여성 수연이를 응원하게 된다.

MOVIE <더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 최초의 여성 발행인 '캐서린'의 이야기다. 가부장제 안에서 안온하게 지내던 여성이, 생애 처음 스스로 한 선택으로 세상을 뒤바꾼 이야기이기도 하다. 캐서린이 미국 정부 기밀문서의 특종 보도를 결정하면서, 존재감이 희미하던 워싱턴 포스트는 단숨에 국민 언론으로 인정받았다.

#댕낼대숲 #적정거리유지 #친함_아니고_무례함

댕낼대숲 두 번째 사연은 '한국인의 정'이라고 퉁 치지만, 사실 타인의 사생활을 배려해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B씨가 제보해주었다. 7가지 항목을 읽고 찔린다면, 당신은 친함과 무례함을 구분 못하고 있을지도…!

EDITOR 원더우먼 wonderwomen@univ.me *빵은 사연 제보 환영
INFORMER 한국이 그리워 돌아왔는데, 무례한 사람들에게 학을 뗀 B

01

자꾸 외국어 해보라고 하지 말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해외에서 보내고 한국에 돌아와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외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정도지만, 한국 친구들 앞에서는 쓰고 싶지 않아요. 지금 있는 곳은 한국이고, 모국어로 말할 때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친구들도 딱히 강요하지 않고요. 그런데 안 친한 사람일수록, 발음 들어 본다며 자꾸 외국어를 시킵니다. 몇 번 거절하다가, 하도 집요하게 굴어서 결국 말하게 돼요…." 원어민 발음을 그렇게 들어보고 싶다면, 해당국가에서 제작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게 어떨까? 해외에서 살다 온 친구는 구경거리가 아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그 나라엔 지하철 어플 있어? 스마트폰 있어?' 등의 부심부리기가 있다. 너님이 만든 것도 아니면서 그러지 마라.

> "어릴 때 해외에 있었다고 했더니, 낯선 동기가 '너희 집 부자라며?'라고 말을 걸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잣집 애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각자 집안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까지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나요? 결론적으로 걔가 하려던 말은 '돈 많으니까 니가 쏴'였죠."

04

이상한 단체 의식 강요하지 말아요

"대학은 듣고 싶은 수업을 듣고,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곳 아닌가요? 그런데 뒤풀이같은 과 행사를 반드시 참여해야만 하는 의무처럼 말하더라고요. 과외 활동의 경우에는 더 심해요. 운동 동아리에 들었는데, 연습은커녕 매일 술자리만 갖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여자 꼬셔볼까 하는 눈치인 복학생 선배들만 가득하고. 회식할 때, 우리는 대회 안 나가냐고 물어봤다가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죠." 하기 싫어도 단체 생활이니까 참고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싫다는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고,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열심히 하자. 정말 집단의 대의를 생각한다면, 공공의 위생을 위해 화장실 다녀와서는 손을 비누로 잘 씻고, 섹스를 할 때는 성병 예방을 위해 콘돔을 꼭 사용하도록 하고. 그게 더 모두를 위하는 길이다.

05

실수하면 미안하다고 말해요

"제일 불쾌지수가 올라갈 때는 대중교통 탈 때나 건물에 들어갈 때죠. 해외에 있을 때는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은 문 잡고 있다가 도어맨이 되기 일쑤예요. 뒤에 뒷사람까지 아무도 안 잡아서요. 학교로 가는 마을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내리기도 전에 타는 사람은 부지기수고, 새치기하고, 발을 밟고도 미안하단 소리 안 하는 사람들투성이고요. 과잠을 입은 걸로 봐선 분명 우리 학교 학생이 맞는데도…."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인데 혹시 안 나온 거 아냐? '바른생활' 안 배워서 모르겠으면 외우자. 새치기는 하면 안 된다. 대중교통을 탈 때는 사람들이 내린 다음 타야 한다. 적어도 본인이 들어갈 문은 본인이 잡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실례를 했을 때는 '미안하다'라고 말하자.

02

개인정보 캐묻지 말아요

"해외에서는 애초에 나이를 물어보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요. 아주 친해지기 전까지는. 근데 한국에 오니 누구든 일단 '몇 학번? 몇 살?'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말해주면, '화석이네, 할머니네' 소리를 들어요. 팀플로 처음 만난 어떤 사람은 다짜고짜 자기 나이와 여친 유무를 알려주더라고요. 뭔가 싶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저한테 몇 살이냐, 남친 있냐 묻는 거죠.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본인 개인정보를 (묻지도 않았는데) 알려주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탈탈 털어도 될 권리가 생기진 않는다. 친하지 않은 사이에 개인정보를 묻는 것 자체가 실례고 민폐다. 나이를 모르면 친구가 될 수 없다 생각한다면,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있는지 스스로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괜찮다.

03

만날 때마다 외모 지적하지 말아요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면 거의 '얼평'으로 이어져요. '이목구비 예쁜데 왜 살을 안 빼'라거나, '45kg 넘는 여자 이상한 거 아니야?'라거나 하는 말은 보통이죠. 심지어 어느 날은 구남친과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는데 장난이랍시고 '코에서 국수 나오겠다. 블랙헤드 좀 봐'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예쁜 외모는 아니지만, 그때까지 한 번도 남이 제 외모에 이래라저래라 한 적은 없었거든요. 요즘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내 험담할까봐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얼평'은 낳아준 부모가 해도 싫다. 무슨 권리로 남의 자존감을 깎아먹는지. 가끔 '화장하니 예쁘다'처럼 '예쁘다'만 넣어 말하면 칭찬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그냥 '얼평'이다. 아무도 당신에게 예뻐해 달라고 한 적 없다. 문명인답게 외모에 대한 언급은 하지 마라, 좀!

06

대놓고 훑어보지 말아요

"저번 학기 교환학생 온 친구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저는 키도, 덩치도 보편적인 한국 체형보다 큰 편이라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불쾌한 시선에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외국 학생들에게는 더 심하더라고요. 히잡을 썼거나, 흑인이거나 조금만 달라 보이는 사람이 지나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봐요."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구경거리가 아니다. '내 눈 가지고 내가 보는 건데 뭐'라는 생각부터가 글렀다. 눈알 잘 간수하는 건 문명인의 의무다. 화장을 안 했어도, 머리가 떡 졌어도, 초록색 스타킹을 한쪽에만 신었어도, 푹 파인 민소매 원피스를 걸쳤어도. 네 알 바 아니니 신경 꺼라.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불쾌지수 높이지 말고.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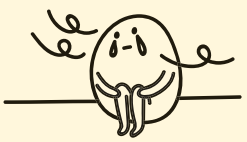
무신경하게 차별하지 말아요

"가장 적응 안 되는 건, 차별적인 발언과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수업 끝나고 다 같이 잔디밭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선배가 '짱깨 시켜 먹자'로 운을 떼더라고요. 일상적으로 말하니까, 중국집 이름인 줄 알았다는 외국인 학생들도 있었죠…. 똑 부러지는 여자 친구들에게 '쟤는 기가 세서 안 돼'라고 쯧쯧거리는 일도 많아요. 목소리 큰 남자 선배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스무 살 넘어 자기 의견도 말 못하는 쪽이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해외는 유토피아, 한국은 헬조선이라는 게 아니예요. 하지만 배울 부분이 있다면 배워야죠."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모든 문화는 악습이다. 대학생쯤 되었으면, 다른 인종, 종교, 성별,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는 정도는 알 때도 되었다. 제발 배운 사람답게 말과 행동을 고르자.

나는 이렇게 망했다

CC 하면 마냥 알콩달콩 행복할 것 같죠? 자취하면 부모님 잔소리도 없고, 술도 실컷 마시고 신날 것 같죠?
저희도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보다 한발 앞서 망한 선배들이 말합니다. "대학 생활 이렇게 하면 나처럼 된다." 바보짓의
향연 속에서 타산지석의 교훈(적어도 쟤처럼은 살지 않겠다)과 작은 위로(나보다 더한 놈도 있구나)를 얻어가시길!

EDITOR 김혜원 hyewon@univ.me **INTERN** 최은유 **ILLUSTRATOR** 남미가



술 때문에 망함

인사 드립니다! 인문대 '개' 입니다

강민상 / 1차 고기, 2차는 해물, 3차는 경찰서

"야, 인마 스무 살이 됐으면 술 먹고도 널 책임질 줄 알아야지."

대학교 첫 OT이자 나의 첫 술자리. 인문대 회장 형이 만취한 나를 다그쳤다. 이에 나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담아 이렇게 대꾸했더랬다. "야! 나… 나 여롸홉 살이야! 나 빠른이라고오!" 그러고 나서 구토를 몇 번 했고, 욕설도 뱉었으며 가정사를 읊으며 눈물도 흘린 것 같다. 다음 날 비릿한 위산의 향을 머금고 눈을 떴을 때 문득 생각했다. 자퇴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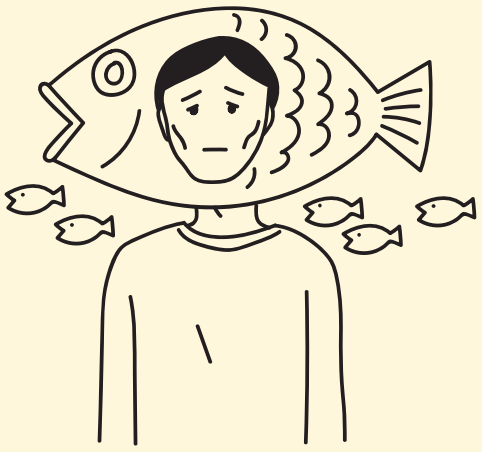
이렇게 나는 개강 첫날부터 '인문대의 개'로 불리게 되었다. OT가 남긴 첫 음주의 날카로운 추억으로 인해 금주를 선언하고 다시는 입에 술을 대지 않았을 리가 만무, 나는 그 후로도 인문대의 개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데 내 간은 '주인 놈아 그만 좀 마셔라!' 하고 매일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술자리의 이유는 다양했다. 매주 학생회 모임이 있었다. 동아리 뒤풀이도 매주 있었다. 수시 모임 동기들끼리는 2주에 한 번꼴로 술을 마셨고, 그냥 많이 마셨다. 술자리가 잦은 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 폭음이 잦았던 것이 문제였지….

내 인생 가장 큰 만취 사건을 고백해보겠다. 바야흐로 2009년 이태원, 대학 동기들과 이국의 정취에 젖고 술에도 젖고 하는 날이었다.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셨고, 블로그 검색을 통해 찾은 힙하고 핫하다는 클럽으로 향했다. 원 프리 드링크로 촉촉하게 목을 적신 나는 본격적으로 흔들어볼까 하는 찰나에 응급실에서 눈을 떴다. 응? 나는 분명 어제 블랙러시안을 먹고 있었는데 눈 떠보니 수액을 맞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인가 싶어 폰을 꺼내보려는데 폰도 없었다.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못하는 눈빛을 보내니 간호사 선생님이 다가와 남사스럽다는 표정으로 "새벽 3시쯤 내원하셨고, 이태원 골목에서 쓰러져 계셨다고 하네요." 하고 작게 말했다. 아마도 보도블럭을 목침삼아 자고 있는 나를 맘씨 좋은 행인께서 친히 구해주신 것 같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염라대왕님 앞에서 눈을 떴겠지. 훗날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화장실 간다던 내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한다.

이태원이 남긴 첫 클럽의 날카로운 추억으로 인해 이번에는 진짜 금주를 선언하고 다시는 입에 술을 대지 않았을 리가 만무, 대학 시절 내내 나는 한결 같았다. 그렇다면 나는 대체 왜 이기지도 못할 술독에 빠져살았던 것일까. 대학의 술자리는 like 인싸들의 계모임. 지나친 음주는 능력, 술자리 인맥은 권력이다. 내 대학 생활도 그랬다. 술자리에서 만난 잘나가는 선배는 나의 마패였고, 까마득한 후배와 잔을 섞는 것은 나의 젊음이었다. 고로 나는 술자리에 빠지는 것이 불안했다. 심지어 술 실수마저 나를 골 때리고 재밌는 애로 만들어 주었으니 대학은 얼마나 술에 관대했고, 술이 중요했던 것인가(물론 내가 제일 큰 문제였다).

써놓고도 찌질한 말들뿐이지만 정말 그랬다. 이렇게 착실한 음주를 통해 나는 뛰어난 랜덤 게임 실력과, 졸업하면 연락도 안 할 선후배 그리고 2.9의 학점을 얻었다. 내가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모두가 '전날 술 마셨겠거니' 생각하게 되었고, 엄마는 나를 내놓은 자식이라 칭했다. 흑역사는 너무도 많아 읊조리면 판소리인데 판소리 조금 해보자면… 여자친구를 전 여자친구 이름으로 잘못 불러 매화수 병으로 맞고 헤어진 것, 한 여름에 놀이터에서 잠들어 모기 밥이 된 것, 길거리에서 잠들어 경찰서에 주취자로 잡혀간 것 정도다, 얼쑤!

지금까지도 이 판소리는 다양한 버전으로 지인들에 의해 10년 넘도록 구전되고 있다. 대학 생활 추억을 꺼내볼 때 술밖에 나오지 않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 왜 나는 진즉 더러운 술버릇을 버리지 못했을까. '술 말고 더 건설적인 일을 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나는 말할 자격이 없다. 인문대의 개에서 대학내일의 개로 거듭났고, 얼마 전엔 술 먹고 팀장님 뺨을 때렸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 말이 더 와 닿겠다. '대학 때부터 그렇게 마시면 제 버릇 개 못 주고 나 같은 서른 살이 되니 자제하도록.'



CC 망함

앞뒤 안 보고 시작한 CC로 청춘을 망치는 법

조웅재 / 럽스타그램 @woongja_c

"가! 이 새끼야! 제발 좀 가라고!"

그녀가 소리쳤다. 제대로 몸도 못 가누는 그녀와 그녀의 친구, 그리고 나는 건대입구역 3번 출구 앞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어색한 삼각형을 그린 채 멀뚱히 서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친구와 나만 서 있었고 그녀는 반쯤 쓰러진 채였다. 괴성을 지르며 "빨리 꺼지라"고 말하는 그녀를 보며 한숨을 푹푹 쉬자니 그녀의 친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안 되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일단 먼저 들어가세요."

약 한 시간 반 전,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가 찍혔다. 당신 여자친구 ○○이 친구인데, 급히 건대입구로 와달라는 전화였다. ○○이가 건대에서 선배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 꽐라가 됐으니 데리러 좀 와 달라고. 또야? 나는 한숨을 쉬며 건대입구로 향했다. 선배라는 놈은 키가 크고 멀끔히 생긴 사람이었다. 다만 과 여자 후배에게 술을 진탕 먹여 수작 부리기로 유명했다. 곧 입대를 앞두고 그녀와 술 약속을 했단다. 그런 놈과 약속이 있다고 내게 언질도 주지 않았는데. 한 시간 반을 걸려 도착한 곳엔 만취 상태로 쓰러져 "니가 여기 왜 오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녀와 친구뿐, 선배 놈은 자취를 감춘 뒤였다.

학기 초가 되면 CC가 넘쳐난다. 재수하며 사귄 여자친구도 있었지만, 대학생이 되니 모든 게 새로웠다. 팔짱 끼고 벚꽃 흐드러진 교내를 걷는 커플이 그저 부러웠다. 단순히 함께 수업 듣는 동기 사이에서도 정이 싹텄다. 그녀는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술을 좋아하면서 술버릇이 나빴다(최악).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성 편력도 심했다. 술 한 잔도 못 하는 나와는 상극이었으나, 서로 다른 매력 때문에 끌렸다. 우리는 각자 전 애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서로 그러자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다. 영등포구청역 근처 벤치에 앉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전 여자친구는 갑작스런 이별에 눈물을 쏟았다. 죄책감은 다음 날 시작한 새 연애의 설렘에 조용히 묻혔다. 그녀의 제안으로 우리는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조차 속이고 비밀 CC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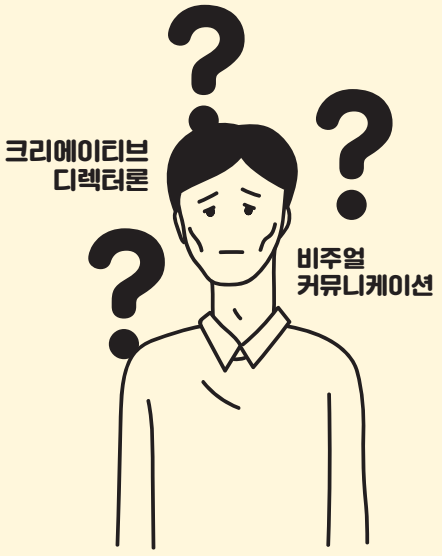
건대입구 사건 이후에도 언제나처럼 나는 그녀로부터 어떤 해명도 듣지 못했다. 슬쩍 "이제 공개 연애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안했지만, 그러면 여럿 곤란해질 거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 대답의 진짜 의미는 그해 크리스마스에 밝혀졌다. 크리스마스이브에 가족 여행을 간다던 그녀는 알바하던 가게에서 만난 오빠와 여행을 갔다. 24일 밤, 한가하던 나와 함께 술을 먹던 과 친구가 내 앞에서 "○○이, 요즘 만난다던 그 오빠랑 어디 놀러 갔다던데?"라며 건조하게 내뱉은 말이 화근이었다. 가족 여행이 아니라 가족 놀이를 하러 간 그녀와, 예상치 못한 뒤통수를 맞은 나는 결국 파퀴아오와 메이웨더처럼 주먹 대신 욕설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끝냈다.

춘풍에 마음이 동할 수 있다. 마음이 동하니 익숙함보다 설렘이 그리울 수도 있다. 다만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꼭 두 가지를 생각해라. 1. 오랜 신뢰를 저버릴 만큼 지금의 설렘이 중요한가. 2. 그래서 그(녀)가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인가. 그리고 비밀 연애는 때려죽여도 하지 마.

수업 망함

이름만 보고 강의 선택하면 이렇게 된다

빵떡씨 / 사실 전공도 이름 보고 정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귀찮음이었을까 허세였을까. 아마 그 둘의 찰떡 같은 콜라보가 이뤄낸 성과였을 것이다. 나는 신입생 때 많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 데 연연하는 이상한 취미가 있었다.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여유로움을 연출했었다. 어떤 중요한 결정도 신중한 얼굴로 "귀찮다"고 해버리곤 '방금 좀 멋있었다'고 뿌듯해하는 이상한 취향.

수강 신청을 할 때도 줄곧 그런 태도였다. 이 강의가 꿀강인가요, 저 강의가 학점을 잘 주나요 같은 걸 묻는 건 참 멋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우스 휠을 드르륵드르륵 굴리며 차분히 강의명을 훑어보고 그중 제일 멋있는 이름을 픽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론'이라든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같은 강의를 발견하면 그 멋짐에 잠시 아찔해하다 떨리는 손으로 강의를 장바구니에 담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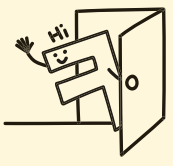
그러다 듣게 된 강의가 '내러티브 구조의 이해'였다. 연극영화나 문예창작 전공의 예술 동지들이 많았다. 강의 내용은 이해가 잘 안 됐지만 대충 멋있는 느낌이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마시는 것처럼, 강의에서 수업을 들었다기보다 예술적 느낌을 들었다. 대강 만족하면서 강의를 듣던 중 첫 과제를 받았다. '네러티브에 대한 감상을 비주얼로 표현하시오.' 오늘 아침에 싼 똥을 팬톤 컬러로 표현하라는 요구만큼 난감했다. 그 과제를 받았을 때 X됐다는 걸 감지했어야 했다. 동기는 아연실색한 내게 조언을 했다. "아무거나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무 말이었지만 그땐 꽤 그럴싸하게 들렸다. 그래서 정말 아무거나 만들었다. 종이접기 김영만 선생님이 봤다면 "우리 코딱지들~ 정말 코딱지 같은 걸 만들었네요~" 하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선생님….

드디어 과제 발표날이 됐다. 예술 동지들의 열띤 발표가 이어졌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아무거나 만들어온 사람은 나뿐이라는 걸. 나는 약간 울컥하는 심정이 됐다. 의미만 부여하면 된다던 동기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죽빵을 날리리라 다짐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내 차례가 됐다. 예술 동지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발표를 시작했다. 5분 정도 열심히 이빨을 털었다. 잘 털고 있는데….

"오른쪽에 검은색으로 표현한 부부느흐…ㅎ…히…ㅎ"

갑자기 현타가 온 것이다. 10분 만에 완성한 과제와… 거기에 추상이니 의미니… 하는 말을 욱여맞추는 나와… 그걸 경청하는 사람들… 특히 그 경청… 좀 대충 듣지… 왜들 그렇게 열심히 들어서 사람 기분을 이상하게 만들고… 다시 떠올려도 빈혈기가 도는 것 같다. 장내는 술렁였고 예술 동지들은 '웃기다'와 '웃어도 되는가' 사이에서 치열하게 번뇌하다 하나둘 피식거리기 시작했다. 난 겉으론 웃음을 참기 힘들었지만 속으론 울음을 참기 힘들었다. 창밖의 벚꽃처럼 흩날려 사라져 버리고 싶었다.

여기까지가 내 치욕의 역사다. 이후에도 많은 걸 귀찮아하고 있지만 이제 이름만 보고 강의를 선택하진 않는다. 특히 어떤 과제를 주는지는 꼭 알아보는 편이다. 모두 나를 타산지석 삼아 좋은 수강 신청 하시길 바란다.



자취 망함

자취방 한번 잘못 구했다가 파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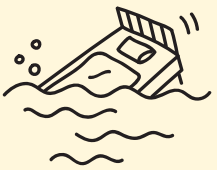
김현수 / 집주인과 분쟁 중

백에 삼십. 돈 한 푼 없으면서 자취는 하고 싶어 부모님께 갖은 생떼를 부리던 지난 시절의 나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방이었습니다. 내 커다란 풍채를 아늑히 감싸줄 드넓은 평수 덕에 매 순간이 행복했죠. 그러나 행복의 유효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던 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인주 묻은 도장을 그의 이마에 콕 찍어버리고 도망칠 겁니다.

네. 저는 지금 역사적인 첫 자취의 끝자락에서 지난한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어느 날 수도가 동파되어 집에 물난리가 난 것이 문제의 '시~ 발~ 점'. 대한민국에 찾아온 이례적인 한파의 위력은 역시나 제 첫 자취방도 피해 갈 수 없었거든요. 하필 나의 러블리 해피 하우스에 이런 봉변이….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싶은데 바짓단이 다 젖어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대자연 앞에서 나약해지는 인간처럼, 저는 임대인 밑에서 아무런 힘 못 쓰는 임차인 신세였죠. 그는 선심 쓰는 척 '천재지변'인 것을 고려한다며 배관 수리비의 절반만을 저와 룸메이트에게 요구했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충분히 높여놓은 다른 집은 괜찮은데, 우리 집만 보일러를 외출로 해놔서 동파가 되었다며 책임을 지라네요. 없는 살림에 난방비 좀 아껴보겠다고 한 행동이 잘못이라면 잘못인 건가 싶어 일단은 수리비의 반을 물어주기로 했어요. 공사 기간에는 그 방에 살 수 없어 이미 낸 월세를 돌려받아야 했는데, 차라리 그것을 받지 않고 그 돈으로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은 조금 고민하다 학생들과 미래의 정(情)을 남겨놓는 의미로 '오케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태세 전환은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가 되어서야 시작됐습니다. 지난 설 인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에 관해 문자를 보내자 그동안 자신이 너무 힘들었고, 매일 젖은 장판을 말리느라 고된 나날을 보냈다는 답이 돌아온 것이죠. 본인의 마음을 잘 몰라줘서 뾰로통한 것 같은 그를 보며 지금 내가 썸 타고 있는 건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정신을 다잡고 보증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도 동파로 인해 또 다른 문제들이 하나둘 생겨났기 때문에 장판, 벽지, 침대 다리, 옷장, 그리고 '배관' 수리비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을 혼자 내리고는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배관 수리비에 관해서는 나름 훈훈한 결말을 지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정말 돈을 더 내라는 건가 싶어 의아해하니 집주인은 불쑥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여타 다른 계약서와 같이 문제의 책임은 당연히 '임차인'에게 있었죠. 하지만 이미 수리비용을 월세로 대신하겠다는 쌍방 구두 합의가 있었는데 계약서로 돌아가자니, 정말이지 '개꿀잼몰카'가 아닐 수 없었어요. "이미 합의가 끝났는데 배관 수리비를 또 내야 하는 건가요?" 재차 물었더니,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죄송하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계속 따지고 드는 것이 너무 괘씸하다", "사람이 돼라"는 등 온갖 모욕적인 언사와 더불어 비용을 더 청구하고 싶다는 협박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렇게나 '정'을 강조하던 '어르신'은 그 어디에도 없었지요.

결국 계약 기간은 끝났고, 보증금은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내일 정산 요청 금액을 통지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집주인과의 대화는 일단락되었죠. 가난한 학생을 상대로 보증금을 떼어먹는 나쁜 어른 덕에 나의 첫 자취는 사회의 쓴맛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취를 시작할 때 받은 용돈 봉투에 쓰여 있던 '아들의 첫 독립을 축하하며!'라는 문구가 눈앞에 번집니다. 성인이 됐지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은 아직 낯설고 외롭기만 해요. 하마터면 홀로 서기도 전에 주저앉을 뻔했죠. 하루가 멀다고 변덕을 부리는 집주인과 대화를 잘 이어나가는 것이 어쩌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맞이하는 참 수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물론 끝까지 힘내서 보증금은 돌려받을 겁니다. 이 글이 읽히고 있는 순간 내 보증금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내 첫 자취방… 사랑했다….



팔랑귀라 망함

성격 좋은 새내기 코스프레의 최후

팔랑귀 / 그래도 지금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난 새내기 때 세상에서 가장 귀가 얇은 사람이었다. 게다가 거절 못하는 병도 앓고 있어서 거의 강제로 예스맨 행세를 해야 했다. 덕분에 성격 좋은 새내기 코스프레를 톡톡히 할 수 있었지만 선배들의 이런저런 권유에 시달렸다. 그렇게 팔랑귀 예스맨은 입학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선배들의 권유로 단과대 학생회 집행부 활동을 하게 되었다. 불행의 시작. 그때부터 나도 망했고, 내 대학 생활은 더 망해버렸다….

학생회 활동을 했던 2년은 회의와 행사, 선배들이 참여하는 교외 활동과 캠페인, 선거 활동의 연속이었다. 팔자에 없는 아침 등교를 할 때가 있었고, 아예 집에 들어가지 못한 날도 여럿이었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휘몰아치는 행사들 때문에 고3 때 설레는 맘으로 적어둔 위시리스트는 봉인되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학생회 사람들과 술 먹고 밥 먹느라 친한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 것도 어려웠다. 물론 학점도 깔끔하게 말아먹었다.

진짜 비극은 2학년에 올라가 시작되었다. 어느 날 돈가스를 먹자며 불러낸 선배는 내게 학과 학생회로도 활동해볼 것을 제안했다. 먹던 돈가스가 돼지로 변해 올라올 뻔했다. 단과대 집행부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과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 과방 건물 쪽으로는 잘 때 머리조차 두고 싶지 않았다. 나름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이후에도 여러 명의 학생회 선배들을 번갈아 가며 만나야 했다. 어떤 선배는 맛있는 음식을 사 주었고, 어떤 선배는 책임감 운운하며 짜증까지 냈다. 제안이 강압이 되어간다는 걸 눈치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대단한 팔랑귀였다. 거절했을 때 나빠질 나의 '착한' 이미지가 걱정되기도 했다. 결국 단과대 학생회와 과 학생회를 병행하게 된 주인공은? 나야 나…!

신입생 OT로 바쁜 시기에 두 학생회 일을 병행하기 위해선 계속 밤을 새워야 했다. 모두가 행복한 방학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며 시간을 뺏기는 피로감은 어마어마했다. 그런데! 정작 내게 '제안'했던 선배들은 언제나 준비를 소홀히 했다. 책임감 똥 준 듯한 태도를 보며 2년 묵은 본성이 점점 고개를 들었다. 행사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이 생길 때마다 올라오는 혈압을 주체할 수 없었고, 난 점차 짜증 대마왕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해결되지 않는 갈등을 겪으며 그제야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곧 어마어마한 현타가 몰려왔다. 또 다시 밤을 새워 일하던 어느 날 새벽 4시, 과 개강 행사 준비 목록을 체크하던 나는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때려치우리라 다짐했다. 나를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과대 학생회에만 남기로 하고, 과 학생회를 박차고 나왔다. 마음 같아선 나 몰라라 칠렐레 팔렐레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약속한 행사까진 모두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대학 인간관계는 파탄 났고, 크고 작은 뒷담화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래도 그 뒷담화들 덕분에 수명은 늘어났을지도 모른다. 무병장수할 수 있을지어다, 깔깔깔.

그때부터 하고 싶은 것들만 하며 짜릿하고 새로운 대학 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물론 가끔씩 억지로 하기 싫은 것들을 이어가며 허비했던 2년이 아쉬워지곤 한다. 그래도 후회는 금물. 얼마 남지 않은 대학 생활을 마저 불살라볼 생각이다. 아직도 나를 곱지 않게 보는 눈들이 있지만 이젠 그마저도 즐거워서 쌈바 춤을 출 수 있을 지경이다. 하고 싶은 것만 누리는 자유가 넘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부디 선배의 제안은 선택적으로만 골라 듣고 '개쌍마이웨이' 하시라.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최고다!

인간관계 망함

친구가 안 생겨서 고민인 새내기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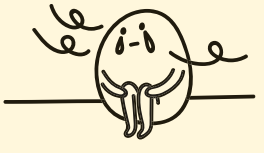
양언니 / 외로움 전문가. 요즘은 친구가 많아서 고민이다

스무 살의 나야, 안녕.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줄게. 먼저 넌 새터에서 한 조로 묶인 동기들과 같이 다니게 될 거야. 수강 신청도 같이 하고 개강 모임도 같이 가고. 근데 뭔가 좀 안 맞는 걸 느껴. 시간이 지나도 관계가 좀처럼 깊어지지 않을 거야. 네가 꿈꾸고 있는 대학 생활은 그런 거지? 새로 사귄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시고 그러다 같이 수업도 빠지고, 한강에서 피크닉도 하는…. 환상을 깨서 미안한데 안타깝게도 너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성급하게 무리를 지은 친구들은 금세 뿔뿔이 흩어질 테고, 그제야 주변을 둘러봐도 네가 끼어들 틈은 없을 거야. 이미 다들 친해져 있을 테니까.

새내기들은 3월에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하잖아. 과방에 앉아 있으면 선배들이 밥 사 준다고 한다며. 너도 일말의 기대를 품고 수업이 끝나면 과방으로 가게 돼. 근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싸하지? 동기들은 선약이 있다며 자리를 뜨고, 선배들은 곤란한 표정으로 혼자 남겨진 너를 쳐다 봐. 그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니 더 이상 과방에 가고 싶지 않아져. 어쩌다 밥 약속이 잡히면 그 자리는 또 얼마나 어색하던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기억도 나지 않는 겉도는 대화를 나누고 끝이야.

그런 너에게 술자리가 마지막 남은 희망처럼 느껴지는 건 당연해. 웬만한 술자리에는 절대 빠지고 싶지 않을 거야. 혹시라도 재밌는 술자리를 놓쳐서 대화에 끼지 못하게 되면 어떡해. 근데 역사적인 술자리 따윈 없더라. 모인 사람들 모두 술이 서툰 새내기잖아. 어색하니까 술 게임만 하고 주량도 제대로 모르면서 호기 부리느라 원샷하고 토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엉망진창이었어. 모임 자리에선 곧잘 친하게 지내지만 연락한다거나 단둘이 만나기는 어색한 그런 사이 있잖아. 매일 똑같은 술자리에서 남은 건 딱 그 정도의 관계였어. 취기에 웃고 떠들고 나서 비틀비틀 돌아오는 길은 어쩜 그렇게 허무하던지. 원래 대학 생활은 이렇게 외로운 건가? 아니야, 나만 망한 것 같아. 나는 소속감을 간절하게 원했어. 더 까놓고 말하자면 인싸가 되고 싶었지. 언제든 나를 반겨주고 필요로 하는 곳. 한 학기 내내 인간관계에 실패할 때마다 스스로를 탓했어. 내가 사교성이 없나? 매력이 없나? 그렇게 내 대학 생활 첫 학기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폭망했지.

7년이 지난 지금,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 탓이 아니야. 너에게 문제가 있어서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단지 운이 없어서, 너와 맞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뿐이라고. 7년이 지나서야 그게 보이더라. 만약 스무 살의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뭔가 달라질까?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는 걸 그만두고 마이웨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 그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다만 과거의 나를 닮은 누군가에게 잠시나마 기댈 곳이 되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쓴다. 공강 시간 펼쳐 들었던 대학내일에서 위로 받았던 마음을 기억하며.



돈 관리 망함

나는 돈 때문에 망했다 아니, 돈을 '막' 쓰다 망했다

권용범 / 돈 많은 래퍼가 되고 싶다

2014년 3월, 2학년이 된 나는 꿈에 그리던 첫 자취를 시작했다. 역세권에 신축 원룸, 베란다(흡연실)까지 딸린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부모님은 낯선 서울에서 홀로 서야 하는 아들이 걱정됐는지 평소보다 두둑한 생활비를 부쳐주셨다. 게다가 통장은 겨울방학 동안 초밥 서빙으로 벌어들인 알바비와 두툼한 봉투에 담긴 세뱃돈으로 빵빵하게 채워져 있었다. 지금의 나라면 이 돈으로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을 고민했겠지만, 21살에 몇백만원을 거머쥔 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였다. 귀여운 신입생들에게 어엿한 선배 노릇을 '제대로' 해보는 것.

인간관계에서는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가. 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새내기들에게 대학 선배에 대한 로망을 실현시켜주고자 명동 한복판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것으로 도배했다. 2만원짜리 투블럭 헤어 컷, 보온성을 갖춘 슬림 핏 청색 누빔 재킷, 시크한 이미지를 한 층 높여주는 블랙 셔츠와 진 그리고 세 번 신고 다신 신발장에서 꺼내지 않게 될 3센티 키높이 워커까지. 아마 이땐 몰랐을 거다. 멀지 않은 미래에 내 돈 주고 티셔츠 한 장 사지 못하게 될 줄은.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된 후, 멋진 선배의 필요조건은 두둑한 지갑과 그것의 사용 빈도수라 생각했다. 밥값부터 커피 값, 술 값에 택시비까지. 내 자취방에서 신세를 진 후배에겐 다음 날 해장 짬뽕에 물만두까지 시켜줬다. 또 생일인 새내기가 있으면 파*바게트에서 2만원이 넘는 케이크를 대뜸 사다 주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내 체크 카드는 강원도 산골짜기 아디다스 모기한테 물린 팔뚝 처럼 세차게 긁히고 또 긁혔다. 그 와중에 눈곱만큼의 헝그리 정신도 없던 난 안락한 자취 라이프와 3월 꽃샘추위 극복을 위해 방을 사우나처럼 데워 놓았다. 수도 및 전기요금 1~2만원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어떻게 됐냐고? 두어 달이 흐르고 내 통장은 바닥이 났다. 화수분일 줄 알았던 잔고는 수많은 숫자들에 깎이고 깎여 닳아 있었다. 옷 한 벌은커녕 양말 한 켤레에 침을 꼴깍 삼켰다. 후배들의 엥겔 지수를 실컷 낮춰주고는 5개입 오징어짬뽕을 사다 5일을 버텼다(점심 때 라면을 끓여 면만 먹고, 국물을 남겨뒀다 저녁에 밥 말아 먹었다). 온 집 안을 뒤져 나온 백 원짜리 동전을 모아 간신히 담배 한 갑을 샀다.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미납이 석 달을 넘겨 보일러와 전기가 뚝 끊겼다. 난 시꺼먼 자취방에서 휴대폰 불빛 하나 없이 하룻밤을 지새며 허망하게 날려버린 세종대왕님 개수를 뼈저리게 되뇌었다.

선배가 될 후배들아. 후배들은 결코 돈 막 쓰는 선배를 선망하지 않는다는 것과, 잔고는 항상 현실적이고 정직하게 깎여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부디 그놈의 '돈' 때문에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3월에 CC 하면 99% 망하는 이유

3월의 캠퍼스 공기는 들떠 있다. 흩날리는~ 벚꽃잎에~ 나도 모르게 사랑에 빠져 3월에 연애를 시작한 커플은 4월에 장렬하게 '벚꽃엔딩'을 맞이하더라(사실 에디터도 그랬음). 연애 종결만 되면 다행인데, 더 높은 확률로 이로 인한 데미지를 크게 입는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아이고 이건 진짜 의미 없다. CC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제발 조금만 이따가 하면 안 되겠니? 3월에 시작한 연애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해봤다.

EDITOR 정문정 moon@univ.me **INTERN** 최은유
ILLUSTRATOR 백나영

STEP1

썸 타기 완벽한 분위기

일단 마음이 무장해제되어 있다. 눈 맞을 일이 너무 많다.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을 외치다 보면 자연스레 기분이 업 되고 없던 호감도 생긴다. 술 먹은 다음 날 잘 들어갔냐는 카톡부터 일정이나 수강 신청, 점심 약속 등 대학생활에 관련된 연락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꽁냥꽁냥해진다. 그렇게 자꾸 신경 쓰이는 사람이 생겼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의 호감을 성급히 사랑이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다. 행사다 뭐다 해서 자주 술에 취해 있게 되니 특유의 용기가 더해져서 고백을 지금 꼭 해야만 할 것 같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STEP 2

주변에서 자꾸 부추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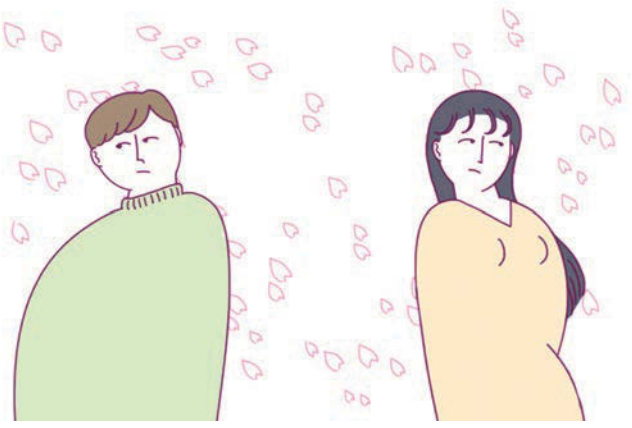
술자리에서 안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기기 때문에 대화거리가 떨어지면 불안할 지경. 그럴 때 조금이라도 핑크 빛 연애가 감지되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화제에 올린다. "완전 잘 어울려~" "솔직히 걔 정도면 괜찮지!" "고백해봐~" "걔도 너를 좋아하는 게 확실하네!" 호감 정도만 있을 뿐인데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사귀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명심하자. 사람들은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그냥 술자리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 아무 말 대잔치를 했을 뿐이다.

STEP 3
'차차 알아가면 되지' 성급함

잘 모르지만 어쩐지 사귀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3월 초 쯤에는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대화를 오래 나눠본 적도 없고 따로 진지하게 이야기해본 적도 없다. 꼭 이 사람이 잘 맞고 좋다는 감정이 아니라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괜찮다' 정도로 상대를 생각하는 거다. 하지만 옷 가게에서도 '나쁘지 않아서' 샀던 옷치고 오래 손이 가는 옷이 없지 않은가? 또 분위기에 휩쓸려 사람들 이야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상대를 왜곡해 보는 경우도 생긴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상태에서 상대를 판단하고, 다른 것은 차차 알아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불행의 씨앗이 되리니….

STEP 4
모두가 기억하는 커플의 고충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뒤집으면 '1등은 누구나 기억한다'가 되겠지? 3월에 연애를 시작하면 모든 과 사람들에게 나는 '00와 사귀는 애' '우리 과 1호 커플'로 인지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 3월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와 상황에서 오는 것들을 흡수할 시기인데 이때부터 연애하게 되면 그 많은 가능성이 차단되어버린다. 3월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새로운 경험의 문이 좁아지는 것이다. 밥도 둘이 먹고 수업도 둘이 듣고 놀러도 항상 같이 다니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며, 주변에서도 커플을 배려한답시고 피해주기도 한다. 그러다 헤어지게 되면 주변에 친구라고는 아무도 남지 않아 강제 휴학이나 편입을 선택하는 경우마저 생긴다. 물론 이 기간 동안 과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가 가십으로 소비되는 것은 1+1 덤…^^



STEP 5
어영부영하다가 더 크게 망함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한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3월부터 사귀다 잘 안 됐을 경우에도 수습이 잘 안 되는 것이 치명적이다. 친구로는 괜찮았지만 막상 사귀어보니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그때도 '지금 헤어지면 완전 가벼운 애 같겠지?' '과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겠어' 같은 고민으로 아닌 걸 알아도 되돌리기 어렵다. 또 싸우더라도 계속 얼굴을 봐야 하니까 대충 수습해버린다.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 상대도 상처받고 내 시간과 감정도 낭비된다. 심지어 헤어지고 나서도 문제다. 다들 왜 나만 보면 구남친 근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쟤는 또 왜 저렇게 자주 눈에 띄는 건데…? 훗날 전공 수업을 들을 때도, 동기 모임을 할때도 어느 한쪽이 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다 내 구남친이 동기나 후배와 사귀게 되면…? 후… 후유증이 아주 낭낭하다.

어디 보자, 너한테 맞는 동아리는…

조상님이 알려주는 동아리 고르는 법 7가지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들리는 소리 "1학년이세요?" 그리고 벽면 가득 붙은 개소리가 난무하는 대자보. 바야흐로 동아리 모집의 계절이다. 그리고 우리 병아리들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동아리는 너무 많고 어디가 나한테 맞는지도 모르겠고. 님들을 위해 동아리를 고르기 전 꼭 체크해 보아야 할 중요 사항을 7가지로 정리했다.

❶ 분위기는 어떠한가?

분위기 파악은 동아리 탐방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 잘못 갔다간 '난 누구? 여기 어디?'가 되기 십상이다. 분위기가 너무 강압적 이진 않은지, 너무 자유분방하진 않은지, 자신에게 맞는 분위기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활발하고 사교적인 친구 하나는, 유명한 토론 동아리에 들어갔지만 너무 진지한 분위기가 부담스러워서 한 달 만에 그만두었다. 사실, 처음 동아리에 들면 자신과 맞지 않아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길 잃은 어린 양이 되고 싶지 않다면 동아리 탐방을 하며 분위기를 직접 겪어볼 것.

❷ 인원수는 적당한가?

동아리든 학회든 조모임이든 적당한 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아리 인원이 적은 경우, 언제나 폐부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하고 일에 치여 죽을 가능성이 크다. 학교 언론사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친구는, 늘 일손이 모자라 수시로 신입부원을 구해야 했고, 밤새워 기사를 쓰는 일로 대학 생활을 다 보냈다. 아, 청춘이여. (그래도 매일 붙어 있다 보니 혈육같이 끈끈한 정이 생기긴 한다고.)

반대로 인원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동아리를 찾는다면 너무 인원이 많은 곳은 비추. 특히, 낯을 가리는 편이라면 인원수 많은 동아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 물론 다양한 사람과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사람이 많으면 일일이 챙기기도 어렵고 무리가 갈릴 확률도 높아 부적응자가 속출하기 쉽다.

❸ 일정이 빡빡한가?

신입생 때 운동이나 해볼까 하는 마음에 가본 운동 동아리. 매일 아침저녁으로 모여 운동하고 방학 때는 전지훈련(?)을 떠날 정도로 '빡세다'라는 말을 듣고 바로 꽁무니를 뺐다.

동아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운동 동아리는 운동하느라, 악기 동아리는 연습하느라, 토론 동아리는 토론하느라 바쁘다. 탐방하면서, 연습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회의는 언제 하는지 체크할 것. 잘못하면 공강 날 회의하러 오게 될 지도 모르니까!

❹ 친목 위주인가?

동아리의 주목적 중 하나는 친목이다. 하지만 체계적 활동보다는 친목을 위주로 한 동아리라면, 성취감 없이 흐지부지하게 끝날 가능성이 크다. 돌이켜 보면 '내가 대체 대학 생활 내내 뭘 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물론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는 당신이라면, 여기가 당신의 천국. 사실 사람이라도 남는 게 어딘가.

❺ 목적에 부합하는가?

친구여 당당하게 덕질을 시작하라! 당신의 학교에는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가 있을 것이다. 예술, 체육, 광고, 음악 기타 등등. 새로운 취미를 찾아 도전해볼 수도 있고,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취미를 더욱 풍요롭게 해줄 선배와 동기가 있다는 건 넘나 행복한 일.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짓만 한다는 엄마의 잔소리를 피해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을 만날 기회다! 세상에, 동아리만 들면 덕질할 공간도 제공된단다. 그런데 시작할라치면 시험 기간인 게 함정. 이젠 학교가 덕질을 방해한다.

❻ 학과 동아리? 중앙 동아리? 연합 동아리?

학과 동아리는 뭐고 연합 동아리는 또 뭐냐고? 동아리는 크게 학과 동아리, 중앙 동아리, 연합 동아리로 나눌 수 있다.
학과 동아리의 경우 학과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 친분뿐만 아니라 정보와 소문 역시 발 빠르게 수집할 수 있다.
중앙 동아리의 경우, 학과를 나누지 않은 통합된 동아리로 다른 학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공대생과 인문대생의 만남의 장. 그래서, 커플이 많이 만들어진다고도 하는데. 내 얘긴 아닌 듯.
연합 동아리는 경기·서울 등 같은 지역의 대학생들이 연합해 운영하는 동아리(세부 조건은 동아리마다 다르지만). 학교에 구애받지 않고 들 수 있고 다른 학교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교내 동아리보다 체계적이며 다양하고 규모가 큰 활동을 해볼 수 있다.

❼ 성과는 어떠한가?

동아리의 성과는 그곳의 정체성이 잘 잡혀있는지, 지속 가능한 동아리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항목! 한 학기에 한 번씩 공연이나 전시회 등의 활동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면, 최소한 유령 동아리는 아니라는 뜻이다. 정기적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사라질 위험이 없다.
그런 동아리를 선택하면 정기적인 활동을 하니 실력도 늘고,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결과물도 만들 수 있다. 유명한 동아리일수록 더 깐깐하고 체계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니 참고. 활동을 하면서 얻는 성취감은 보너스다.

EDITOR 서부엉 moowlon@univ.me **INTERN** 최은유
DIRECTOR 김혜원 **ILLUSTRATOR** liz

나 정도면 괜찮잖아?

하는 마음으로 살기

"잘했어. 잘 먹어야 기분 좋고 행복해지는 거야. 배고프면 다 소용없어. 내 딸이 꼭 필요한 일을 잘 챙기고 다니는 것 같아서 좋다. 멋있네."

늦게까지 밀린 일을 하고 이제 겨우 저녁을 먹었다는 한탄에 엄마가 쏟아낸 칭찬들이다. 밥 한 끼 먹었다는 얘길 가지고 멋있다는 말까지 하다니…. 엄마는 매사 이런 식으로 칭찬을 남발한다. 딸들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벌써 일주일째 달리기하러 나왔어. 나는 내가 이렇게 잘 뛰는지 몰랐다? 뛰는 게 기분 좋더라. 다음 달에 마라톤 대회도 나가보려고." (나: 한 달 만에 마라톤 대회까지?)

"오늘 아침에 매생이 국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깜짝 놀랄 정도였다니까." (나: 그거 엄마가 끓인 거잖아?)

"몸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스포츠 마사지 받으러 왔다. 엄마 잘했지?" (나: 그으럼. 잘했지….)

매일 통화할 때마다 듣는 엄마의 셀프 칭찬들은 방식도 종류도 다양하다. 정말 작은 것에도 칭찬할 구석을 찾는 게 매번 신기하다. 사실, 고백하자면 엄마의 이런 자화자찬을 나는 '극성'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해주는 칭찬들도 별로 믿지 않았다. 엄마는 아무거나 다 잘했다고 하지, 흥. 그런 어린 심통이었달까. 하지만 갑작스레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생각이 달라졌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간 휴가를 내 곁에 붙어 있던 두 딸이 서울로 올라간 후 엄마는 혼자 남았다. 아빠와 매일 얼굴을 맞대고 20년 넘게 살았던 그 집에서, 엄마는 홀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출근도 해야 했다. 그때 엄마를 지켰던 건 내가 유난스럽다고 구박했던 '셀프 칭찬'이었다.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그게 엄마의 힘이 됐다. 그제야 나는 믿게 됐다. 셀프 칭찬이란 의미없이 좋은 말이나 과잉된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나도 셀프 칭찬을 해봐야지. 엄마를 보고 결심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오히려 노력할수록 내가 스스로를 칭찬하는 데 인색한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됐다. "A를 끝냈다니, 잘했어" 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A는 했는데 B는 왜 아직 안 했지?" 하고 다그치는 일이 더 많았다. C를 잘 해냈어도 D에서 실수를 하면 '다 망했다'고 생각했다. 이미 잘 해낸 C는 벌써 잊고 잘못한 일만 헤아렸다.

자화자찬도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야 한다니. 난 왜 이것도 못해? 그렇게 투덜거렸더니 엄마가 말했다. 엄마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라고. 날 때부터 할아버지 없이 할머니와 둘이 힘겹게 살아오며 '잘될 거야' '잘하고 있어' 매일매일 머릿속에 되새기곤 했다고.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하지 않으면 버텨내기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셀프 칭찬을 하겠다며 인터넷 검색을 하고 책을 사 모았던 내가 부끄러웠다. 칭찬 일기를 쓴다느니 나에게 보내는 격려 편지를 쓴다느니 설레발쳤다. '셀프 칭찬'이라는 과제를 잘 마치면 내가 단번에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처럼 단정 짓고 있었던 거다. 하지만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은 긍정으로 가는 고속 열차 따위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바닥에서 자기 자신을 딛고 일어서는 나직한 신음에 가까운 일이였다.

"힘내, 이번엔 잘 안 됐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네 편이야."

"괜찮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셀프 칭찬이란
자기 마음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일

누구나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이런 응원의 말을 해본 기억이 있을 거다. 친구가 좀 더 힘을 냈으면, 기분이 좋아졌으면,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이다. 셀프 칭찬도 똑같다. 가장 내밀한 상처나 괴로움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나 자신'라는 친구가 건네는 말은, 누구의 말보다 더 확실한 응원이 될 지도 모른다.

그걸 알지만 어색해서, 쑥쓰러워서 영 입이 떨어지지 않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셀프 칭찬 멘트가 있다.

"그래, 뭐… 나 정도면 괜찮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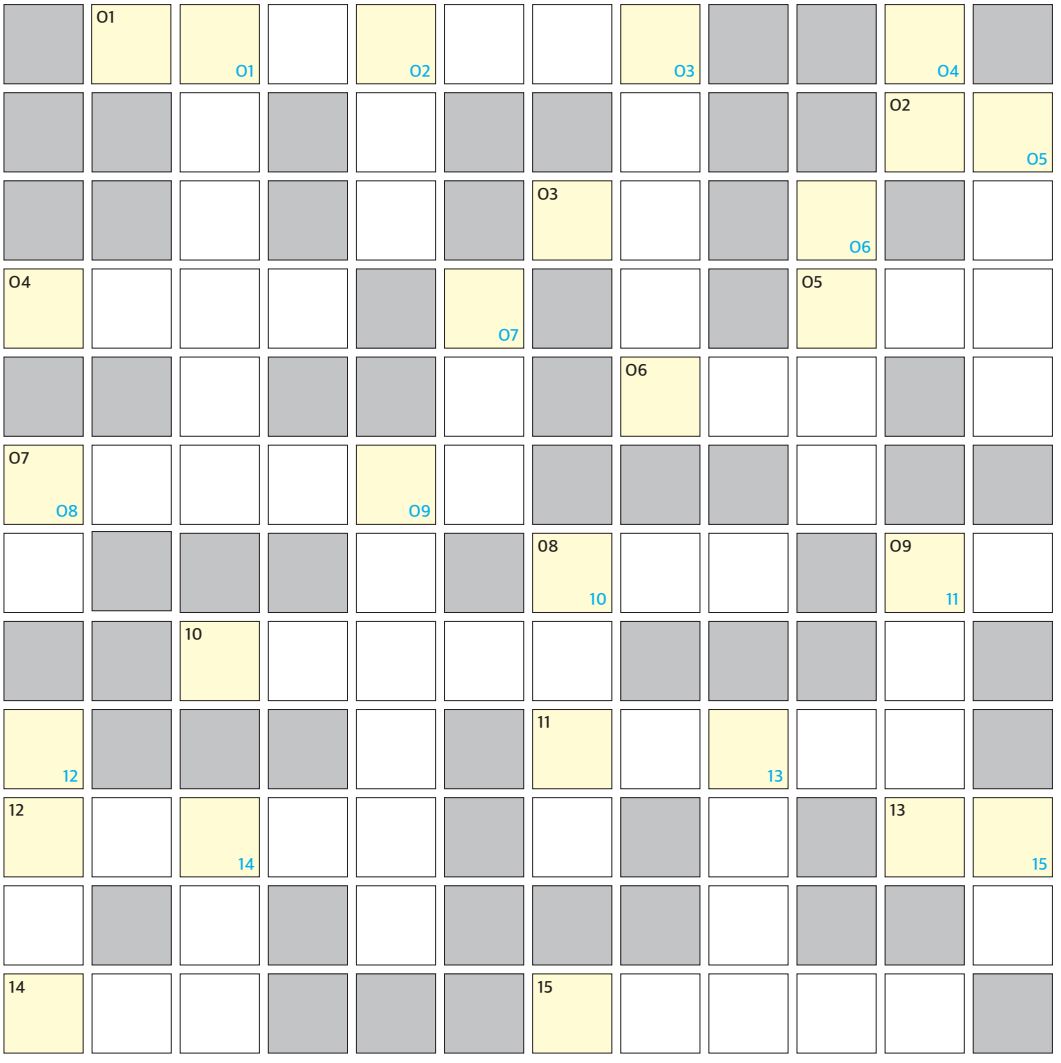
이게 무슨 칭찬이냐고 코웃음 친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거울 앞에서 이렇게 읊조리고 있는 스스로를 보면 왠지 웃겨서 입가가 씰룩씰룩 거린다. 장난끼 섞인 단순한 말이지만, 그것만으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라는 자괴감이 '괜찮아. 그래도 이만큼은 하고 있잖아' 하는 위안으로 변하곤 한다. 생각을 달리하면 '물이 반밖에 없어'라는 불안감이 '괜찮아. 물이 반이나 남았잖아' 하는 안도감으로 바뀌는 것처럼 .

나이가 들수록 칭찬과 응원, 위로가 필요한 순간은 많아진다. 그건 부모의 죽음처럼 커다란 일일 수도 있고, 늦어지는 취업처럼 사회적인 일일 수도 있으며, 인간관계나 재정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너질 것이다. 다행이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를 지탱해주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순간이나 그걸로는 부족한 때도 분명 생길 것이다. 그 때를 위해 여러분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셀프 칭찬을 준비해두면 좋겠다. 웃으며 말해보는 거다. "나 정도면 괜찮잖아?" "이 정도면 괜찮지!"

ILLUSTRATOR 키미앤일이
WRITER 전아론 aron@univ.me
에세이집 『우리는 모두 빛나는 예외』를 썼습니다.

기명군의 낱말퍼즐

그렇게 추웠는데 또 꽃샘추위는 좀 아니지 않냐



WEEKLY GIFT

퍼즐을 완성해 본인 계정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대학내일 #하우투워라밸

다섯 분을 선정해 일과 삶의
적정 온도를 찾는 법,
『하우투 워라밸』을 드립니다!

BOOK
『하우투 워라밸』 안성민, 미래의 창

840호 해답

인	면	조					페	리	클	레	스
		리	히	텐	슈	타	인		로		켈
		돌					트		이		레
패	럴	림	픽			하					톤
			사	토	시	나	카	모	토		
		태		끼		된		비			
수	행	평	가			열		딕		단	테
		양		김	은	정					레
		전	가	복					존	엄	사
	아	쟁		동	인	도	회	사		정	
	지		보					이	상	화	
다	트		아	시	아	나	항	공			

가로 열쇠

01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부문 금메달리스트. 최초로 시니어 데뷔 시즌에 올림픽 챔피언 자리에 올랐고, 역대 올림픽 챔피언 중 최초로 세계선수권 참가 경험도 없다.

02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어떤 것을 하지 않다'는 뜻의 단어. '어떤 목표를 뜻으로 삼고 향하다'라는 뜻의 '지향하다'와 발음이 비슷해 혼동을 주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평화를 지향하지만 핵무기는 OO한다." #OO하다

03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점 형태의 최소 단위로, 네모난 형태를 띤다. '그림(picture)'과 '요소(element)'라는 뜻을 가진 합성어이고, 우리말로는 '화소'라고 번역한다. 같은 면적 안에 이 네모난 점이 많을수록 그림이 더 선명하고, 해상도가 높아진다.

04 특수 제작된 썰매를 타고 규정된 코스를 주행하여 기록 대결을 펼치는 동계 스포츠. 2인승과 4인승으로 나뉜다. 불과 몇 년 전까지 국내에 훈련장이 없어서 <무한도전> 팀이 일본에서 촬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 4인승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 종목에서 유럽·북미가 아닌 국가가 올림픽 메달을 딴 것은 사상 처음이다.

05 KTX 경부고속선이 지나는 수도권의 기차역. 전통적으로 비 서울권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역이었는데 최근엔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3번째 도심공항터미널이 이 역에 세워졌다. 도심공항터미널에서는 탑승 수속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간편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다.

06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한국 페미니즘의 선구자적인 인물로 인정받고 있다. "남편의 아내가 되기 전에, 내 자식의 어미이기 전에 첫째로 나는 사람인 것이오. 내가 만일 당신네 같은 남성이었다면 오히려 호탕한 성품으로 여겨졌을 거외다." #이혼고백서

07 웹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과 업서를 주고받는 취미 활동.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서버에 등록된 다른 사람 중 한 명이 선정된다. 사람도, 국가도 무작위로 선정되기 때문에 각국 다양한 사람들과 업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 #대학내일838호참고

08 한국의 '하비 와인스타인'으로 불리는 연출가. 국내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희단 거리패를 이끌며 연극계의 거장으로 불리던 인물. 최근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폭로가 연이어 터져 끔찍한 범죄 사실이 알려졌다.

09 남아메리카의 국가로, 정식 명칭은 'OO 공화국'이다. 지도를 보면, 세로로 길쭉하게 자리 잡은 모양이 눈에 띈다. 모아이 석상이 있는 이스터 섬, 품질 좋은 와인, 축구선수 알렉시스 산체스 등으로 유명하다.

10 혹시 다음 주 수요일을 기다리고 있나요?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받을 걱정부터 하고 있지 않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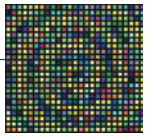
11 1994년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에서 성사된 합의. 미국은 경수로·중유 제공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복귀와 기존 핵시설의 궁극적인 해체를 약속했다. #그러나10년을못가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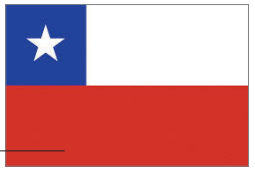
12 올림픽 폐막식에서 울려 퍼진 노래 제목이자 후렴구. 이날 축하 무대에 오른 CL은 이 노래로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스포츠를 통한 자기 극복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모두가 승리자'라는 메시지 전달"이란 소개 자막이 화제를 낳기도 했다. #내가OOOOO

13 한강 한가운데 위치한 무인도. 한강 흐름 개선을 위해 1967년 폭파되었으나 이후 암반층에 퇴적물이 쌓여 다시 섬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표류기

14 다스베이더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홍진호가 뭘 했던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 스키나 스케이트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을 모두 'OOO'이라는 세 글자로 설명할 수 있다.

15 우라사와 나오키의 대표작 중 하나. #20세기소년말고 #몬스터말고 #빌리배트말고





세로 열쇠

01 농촌 배경의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제보자>를 연출한 임순례 감독, <아가씨><1987>의 김태리, <응답하라 1987><택시운전사>의 류준열, <오아시스><여배우는 오늘도>의 문소리가 함께 힘을 모았다.

02 만리장성과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지금은 고궁 박물원이라 불린다. 명나라와 청나라를 거치며 500년간 24명의 황제가 이 궁궐에서 중국을 통치했다. #세계에서가장큰고대건축물 #유네스코세계유산

03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스페인 동부 지방의 항구 도시. 카탈루냐 광장,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등이 유명하다. 지역 연고 축구 팀의 인기가 매우 높아 축구 팬들은 대부분 도시 이름을 들으면 곧바로 유니폼과 메시를 떠올린다. #엘클라시코 #축구로세상을배웠어요

04 1)'~에서 ~까지'를 뜻하는 말. 2)"넌 늦게 와서 별로 못 먹었으니까 OO 마." 3)"니캉 내캉 한판 붙으면 이기는 건 당연히 OO!"

05 현재를 정확히 안다면 미래 역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고전역학'의 대안으로 제시된 물리학 이론. 아인슈타인, 슈뢰딩거 등이 꾸준히 주장했다. 이 이론은 예측이 들어맞을 확률은 높일 수 있어도 틀릴 확률을 0%로 만들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위대한 이론이지만 그 체계가 복잡하여 세계적인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마저도 이렇게 말했다. "OOOO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성이론

06 번개가 치거나 부싯돌이 부딪힐 때의 번쩍이는 빛처럼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번개 O, 빛 O, 돌 O, 불 O.

07 1)센터라인을 넘기 전에 쳐낸 퍽이 어느 선수에게도 터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 팀 골라인을 넘어갔을 때 적용되는 아이스하키 룰. 2)투수가 경기에 나선 후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얼음찜질. 3)국순당의 막걸리 브랜드.

08 지난 연말 이후, 지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

09 짐바브웨의 정치인이자 타락한 독재자. 초대 총리를 지냈고, 제2대 대통령 자리에 올라 약 30년간 장기 집권했다. 30년 동안 온갖 폭정과 비리로 짐바브웨를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망쳐놓았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난해 11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10 오랑캐로써 다른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중국 본토의 국가들이 주변국을 다스릴 때 사용하던 전략으로, 쉽게 말해 내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속셈이다. 최근에도 국제 정치판에서 자주 사용되곤 한다. 어조사 O, 오랑캐 O, 제압하다 O, 오랑캐 O.

11 2011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정유정 작가의 대표작으로, 몰입도 있는 스토리와 생생한 디테일로 사랑받았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3월 말 개봉될 예정이다. #류승룡 #장동건 #송새벽 #고경표

12 지난해 11월 공개된 <월드 오브 워 크래프트(World of Warcraft)>의 새 확장팩 이름. 올여름 발매 예정이다. #격전의OOOO

13 '기상관측용 기압계'를 뜻하는 기상학 용어.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기준, 척도' 등의 의미로 더욱 많이 쓰인다. "수면의 양과 질이야말로 삶의 질의 OOOO다."

14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줄여 이르는 말. "이미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OOO을 따져 뭐 하겠어." #내가잘OOO했어 #2AM

15 운동성 흥분을 나타내는 병적인 정신 상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환각을 일으키는 등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EDITOR 기명균 kikiki@univ.me

신박한 2018년형 SUNNY 활동 6선

20대라면 한 번쯤 경험해보는 자원봉사 활동. 의미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 단순 반복 노동 혹은 청소에 그치는 간접 봉사인 탓에 흥미나 보람을 느끼기 쉽지 않다. 이런 20대를 위해 지역사회를 돕고 스스로를 돕는 새로운 유형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회혁신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EDITOR 조웅재 woongja1@univ.me
ILLUSTRATOR 남미가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란 쉽지 않다. 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세대 간 소통 단절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사회 활동이 부족한 상태.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자원봉사를 소개한다.

세대 갈등 극복 프로그램

세대 간 소통 부족은 노년 인구층이 소외받는 사회를 만든다. 세대 차이와 소통 부재의 주범 스마트폰 활용법을 어르신들께 알려드리는 일일 강사가 되어볼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다. 기본적인 스마트폰 사용법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활용한 1분 영화 제작까지, 어르신들이 몰랐던 응용 방법을 전수하는 활동이다. 누굴 가르치는 건 자신이 없다고? 배움도 소통이라 했다. 어르신들의 손맛 담긴 건강한 레시피를 배워 연구하며 세대 간 소통을 원활히 하는 손맛 계승 프로그램도 있다. 청소와 물건 나르기 등 흔한 봉사 활동만 해본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활동으로 남다른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듯!

장애인 편견 극복 프로그램

장애인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힘들다?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해 마련된 자원봉사 활동이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직업 노동과 창작 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발달장애인과 함께 텃밭에서 작물을 가꾸고, 오감을 활용한 창작 활동과 사회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자. 낯선 일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마음으로 이웃 장애인들과 함께 활동하다 보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벽을 허물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훌훌 벗어던질 수 있으리라.

학교폭력 근절 프로그램

각종 청소년 범죄로 세상이 흉흉한 지금,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소통 단절, 교내 경쟁 조장을 완화하기 위해 경쟁 없는 활동을 기획하며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을 도모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어 다과회, 합주, 롤링페이퍼 등 협동심을 길러줄 프로그램을 수행해보자. 체육 활동과 과학 실험, 지역사회/문화 체험, 코딩 교육도 준비되어 있다. 타인에 대한 분노와 적대심보다 공감 능력과 이해심을 키워가는 아이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거다.

'우리'를 위한 사회혁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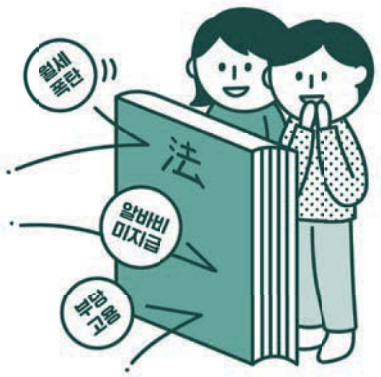
이쯤 되면 궁금증이 생긴다. 소외된 어르신, 학교폭력에 노출된 아이들, 장애인이 살아가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20대의 고민은 누가 해결해줄까? 여기, 고민 많은 20대 청년을 위한 사회혁신 프로젝트가 있다.

청년 주거 개선을 위한 홈 스와핑 프로젝트

각종 대외활동과 청년 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외지 대학생들. 상대적으로 다양한 기회를 얻기 힘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주거 문제다. 이렇게 집이 없어 기회를 잃은 학생들을 위해 숙박/거주 시설을 공유하고 교환하는 '홈스와핑'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제주도와 서울, 각 지역을 잘 이해하는 '토박이'들이 서로 집을 교환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보고 외지 대학생들이 겪는 지역적 불균형을 이해해보는 사회공헌 활동. '토박토박 홈스와핑'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해볼 생각이 있다면 꼭 지원해보도록.

졸업 작품 지원 프로젝트

예술대학 학생들이 졸업 작품에 쏟는 사비 평균 금액은 무려 400만원. 게다가 쓰고 남은 재료와 장비는 뭉텅이로 버려지거나 방구석 어딘가에서 녹슬어 간다.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남는 재료들을 매입하고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서로 교환하며 재료의 회전율을 높이는 '재료중고시장'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대학생들의 휘는 등골을 쫙쫙 펴주는 이 부담 절감 프로젝트를 기획할 크루에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수익금은 장비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값싸게 대여해줄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



법대로 합시다! 청년 법률 사전 편찬 프로젝트

"법대로 합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법을 모르는 젊은이들. 법률 지식 부족으로 알바, 주거(월세), 학교생활, 저작물 등 분야에서 부당한 처우를 겪어본 20대들이 많다.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법률분쟁을 선정해 테마별로 법률 정보 페이지를 개설해보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쉬운 법률 사전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다. '청소년이 사기당하지 않고 사는 사회'가 될 때까지. 법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 지원해보자.

자원봉사, 써니에서 기대해

사회혁신, 써니에서 시작해

2018. 02. 26 mon - 2018. 03. 18 sun

이 모든 활동은 바로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가 2018년에 진행할 내용이다. 학교 폭력, 노인 소외, 장애 편견을 극복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청년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는 사회혁신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보도록!

모집기간 2018. 02. 26 (월) – 2018. 03. 18 (일)

활동분야 자원봉사 분야, 사회혁신 분야

활동기간 자원봉사 분야 2018. 04 ~ 2018. 06
사회혁신 분야 2018. 04 ~ 2018. 12

신청방법 홈페이지(www.besunny.com)를 통한 온라인 지원

렌즈 사용 12년 차 에디터도 몰랐다!

전문 안경사가 알려준 렌즈 상식 Q&A

눈 건조하고 충혈 돼도 쓰던 렌즈만 썼던 내가 바보였네….

EDITOR 전아론 aron@univ.me
PHOTOGRAPHER 강신환

렌즈를 사용하는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는 게 뭔가요?
충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학생 분들은 아침에 렌즈를 착용해서 밤늦게까지 계속 끼고 생활하는 일이 잦으니까요.

눈이 충혈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로 산소가 필요해서 충혈이 돼요. 그럴 때는 산소 투과율이 좋고 촉촉한 성분, 예를 들어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을 권해요. 렌즈를 투과하는 산소량이 많아서 장시간 착용할 때 눈을 편하게 해주고 충혈 완화에 도움을 주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존에 쓰던 제품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니까요.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이 좋은 이유가 뭔가요?
각막에 산소를 많이 전달하는 재질이거든요. 착용했을 때 불편함이 적고 편안해요. 눈에 산소가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줄여주고요.

렌즈를 고를 때 산소 투과율이 가장 중요한가요?
산소 투과율은 렌즈 사용에 중요한 요소예요. 최근 높은 산소투과율의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의 렌즈가 고객에게 선호도가 높아요. 그래도 사람에 따라 맞는 렌즈 종류나 성분이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하죠. 렌즈는 직접 써보는 게 중요해요. 나한테 맞는 회사, 나한테 맞는 성분… 다 다르거든요. 화장품이랑 똑같아요. 같은 제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찰떡같이 잘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맞는 거죠.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원데이 렌즈가 좋은가요?
훨씬 좋죠. 눈이 예민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럴 때는 쿠퍼비전 원데이 같은 제품을 많이 추천해요. 그리고 히터나 에어컨을 많이 써서 눈이 쉽게 건조하고 피로해지는 시즌에도 원데이를 찾는 손님이 많아요.

렌즈의 촉촉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도 있나요?
함수율도 중요한 요소예요. 렌즈가 머금고 있는 수분, 즉 수분 함유량을 함수율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함수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렌즈는 아니고요. 함수율이 낮다고 무조건 안 좋은 렌즈는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쿠퍼비전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의 경우 자연 습윤 제품이라 많이 추천하는 편이예요. 화학적인 첨가물 없이 실제 존재하는 수분을 끌어당겨 촉촉함을 만드는 거죠. 렌즈마다 강점이 다 달라요.

렌즈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 그리고 물기를 제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명심하세요. 손을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하지 않거나, 렌즈를 수돗물로 헹구면 가시아메바균 때문에 염증이나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렌즈를 낀 채로 수영장에 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수영장 물에는 락스가 섞여 있어 렌즈가 미세하게 오염되거든요.

안경점에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안경사 분이 계신지 몰랐어요. 렌즈는 자기가 알아서 골라야 하는 줄 알고….
대부분의 안경원에는 안경사 분이 계시니 걱정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할 때 중요한 건 자기 증상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본인이 일주일에 몇 번을 쓰는지, 몇 시간을 쓰는지, 어떤 렌즈를 써봤는데 그때 어땠는지…. 특히 안 맞았던 제품이 어떤 식으로 불편했는지 기억해주시고 안경사 선생님과 상담해보세요. 저희와 함께 가장 잘 맞는 제품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렌즈 선택 시 당부하실 말씀 있나요?
어떤 렌즈가 나한테 맞을지 고민이라면, 산소투과율과 함수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하지만 안경사와 상의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이나 눈 상태를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렌즈를 꼭 찾아보세요.

쿠퍼비전®

눈 건강을 생각하는 전문 기업 쿠퍼비전

내 눈에 착한 느낌

하루종일 수분촉촉
산소렌즈 클래리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심의번호 : 2018-ET1-06-0025

진짜 내 얘기,
들어볼래?
2018년 청춘느와르
괴물들
이원근 · 이이경 · 박규영 · 오승훈
3월 8일 대개봉

라이프플러스 '플러스 토크' 강연 개최

새학기,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목! '슈스스' 한혜연과 디자이너 김충재, 코미디언 유병재가 일일 코치로 나서 강연을 연다. 'LifeplusX나를 디자인하다 플러스 토크'를 통해 강단에 서는 세 사람은 각각 스타일링, 자기표현, 자신감을 주제로 '나를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 3월 11일까지 라이프플러스 홈페이지(https://www.lifeplus.co.kr/designmyself/)에서 신청 가능하다. 강연 일정은 3월 24일.

세븐일레븐 신제품 '도시락의 정석'

편의점 도시락계의 강자 세븐일레븐이 인기 반찬들로만 도시락을 구성한 '도시락의 정석' 시리즈를 내놨다. '돼지불고기 편'과 '양념&오븐구이치킨 편'이 새로 출시된 제품. 고추장과 간장으로 양념한 돼지고기, 양념치킨 등 메인 반찬 뿐 아니라 부반찬까지 푸짐하게 담아 허기진 이들의 배를 달래줄 예정이다. 가격은 4300원.

이니스프리 'New 그린티 씨드 세럼' 출시

이니스프리 마니아라면 한 번쯤 써봤을 스테디셀러 '그린티 씨드 세럼'이 새로워졌다. 수분에 특화된 녹차 품종인 '뷰티 그린티'를 원료로 사용했다고. 16가지 아미노산이 3.5배로 고농축 함유되어 있어 건조할 틈 없이 촉촉한 피부로 가꿔준다. 출시 기념으로 3월부터 스킨, 에센스인로션, 모닝클렌저, 슬리핑마스크, 크림 등 증정품이 담긴 스페셜 세트를 한정 판매한다.

Weekly Hot & New

이주의 주목할 만한 소식들

도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리커버 에디션 출간

소름 끼치는 반전으로 독서광들의 사랑을 받은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가 새롭게 태어난다. 인터파크도서와 다산책방, 데일리라이크의 컬래버레이션으로 리커버 특별판이 출간되는 것. 표지 위를 뛰어다니는 웰시코기들이 소장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책은 인터파크 도서 홈페이지(http://book.interpark.com)에서 단독 판매된다.

치타 정규 1집 '28 IDENTITY' 발매

돌아온 래퍼! 치타가 데뷔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1집 '28 IDENTITY'는 '치타'와 '김은영'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사는 그녀가 자신의 자아를 찾기 위해 수없이 써 내려갔던기록들을 음악과 가사로 표현했다. 작사·작곡뿐 아니라 앨범의 총괄 프로듀싱까지 맡은 뮤지션 치타의 음악 세계를 엿볼 수 있다. 타이틀 곡 'I'll Be There'에는 치타 특유의 솔직한 감성이 녹아 있다.

<포켓몬스터 공식 컬러링 북> 출간

포켓몬 덕후들이여! 포켓몬스터가 컬러링 북으로 돌아왔다. 시공사가 내놓은 <피카츄 너로 정했다: 포켓몬스터 공식 컬러링 북>이 그것. 금방 완성할 수 있는 도안부터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도안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꾸며졌다. 포켓몬 팬들의 팬심을 충족시켜줄 스토리와 디테일도 살아 있다. 책을 펼치고 피카츄와 함께 바다와 사막을 넘나들어 보자. 가격은 1만 3천원.

영화 <괴물들> 개봉

예고편만으로도 심장이 쫄깃해지는 영화가 개봉한다. 10대들의 권력과 폭력의 비극을 그린 '청춘 느와르' <괴물들>이다. 영화는 지옥을 방불케 하는 학교 폭력의 민낯을 조명한다. 배우 이원근, 이이경과 2015년에 「대학내일」 표지모델로 나섰던 박규영(연세대, 의류환경학13)이 주인공을 맡았다. 3월 8일 개봉.

아이다스 '울트라 부스트 X' 판매

아디다스가 여성 러너들만을 위한 러닝화 '울트라 부스트 X'를 출시했다. 매년 봄 열리는 '아디다스 마이런' 행사를 앞두고 여성 러너들을 공략한 것. 차별화된 쿠셔닝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꼭 맞는 핏감을 구현했다. 봄맞이 마라톤 출전을 계획 중인 러너들이라면 욕심날 만한 제품. 전국 아디다스 매장과 공식 온라인 스토어 및 모바일 스토어에서 판매된다.

그래 바로 너!

:

날이면 날마다 불타오르는
의욕이 아니니까

새 학기라 의욕 불타오르는 너를 위한 **활동 BEST 4**

01

GS SHOP 대학생 봉사단 리얼러브 9기 (~3/19)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면 GS SHOP 대학생 봉사단 리얼러브 9기에 지원해봐. 전국의 대학생들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을 하게 돼. 아이들과 잘 노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환영! 봉사 활동 시간 인증은 물론이고 활동비와 시상금도 지급된다고 하니 놓치면 안 되겠지?

주최 GS SHOP, 기아대책
기간 2018년 3월 19일(월) 마감
태그 #럴루_리얼러브_각이다

02

에듀윌 최다합격 광고 공모전 (~3/20)

공무원 시험 합격은 뭐다 뭐다? 공인중개사 합격은? 마성의 광고 CM송으로 친숙한 에듀윌에서 최다합격 광고 공모전을 개최한대. UCC나 광고 디자인, 한 줄 카피로 에듀윌의 '최다합격'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돼. 대상 상금은 무려 1000만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환영한다고 하니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보자!

주최 에듀윌
기간 2018년 3월 20일(화) 마감
태그 #우리_모두_다_같이 #에_듀_윌

03

제2회 원스토어 북스 웹소설·웹툰 공모전 (~4/8)

요일마다 웹소설, 웹툰 챙겨 보는 친구들! 이제 눈팅만 하지 말고 네 이야기를 펼쳐봐! 디지털 콘텐츠 스토어인 원스토어에서 제2회 원스토어 북스 웹소설·웹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어. 원스토어 북스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웹소설이나 웹툰을 연재하고 신청서와 원고를 접수하면 돼. 대상 총 상금 3000만원을 포함해 총 56명에게 1억 5000만원을 준다니 꼭 도전해봐.

주최 원스토어
기간 2018년 4월 8일(일) 마감
태그 #세상의_모든_스토리를_탐하라

04

제2회 서울형 주거재생 대학생 광고 공모전 (~4/13)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에서 제2회 서울형 주거재생 대학생 광고 공모전을 개최한대. '살고 싶은 주거지 서울', '세대 공감을 이끌어 내는 서울형 주거재생' 등의 주제를 참신한 상상력으로 표현해서 인쇄 광고로 제작하면 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 표창과 함께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해. 네 손으로 서울의 미래를 그려보는 거야!

주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기간 2018년 4월 13일(금) 마감
태그 #I_주거재생_YOU

EDITOR 캐미언니 outcampus01@naver.com

#대학생만을 #위한 #금주의 #꿀정보

EDITOR 김민기 minki12@univ.me

파나소닉코리아

제10회 파나소닉 대학생 홍보대사 PR 챌린지

www.panasonic.co.kr

파나소닉에서 대학생 홍보대사 PR 챌린지를 개최한대.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파나소닉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홍보 기획서와 팀 PR 소개서를 제출하면 돼. 본선 진출 팀은 제출한 기획서를 바탕으로 직접 교내 PR 이벤트를 실행하게 돼. 수상 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파나소닉코리아 인턴 기회와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이 제공돼. 자세한 내용은 파나소닉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해.

응모 기간
~ 2018년 3월 25일(일)

응모 대상
전국 4년제 대학교 재(휴)학생 (같은 대학교 학생 4~5인으로 팀을 구성해 참여 가능)

MG새마을금고

MG새마을금고 대학생 기자단 4기

blog.naver.com/kfcc_no1

MG새마을금고에서 따듯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하고 있어. 기자단으로 선발되면 MG새마을금고의 다채로운 소식과 유익한 금융 정보를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 전달하는 활동을 하게 돼. 매월 활동비도 지급한다고 하니까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을 뽐내고 싶다면 MG새마을금고 블로그를 참고해서 지원해봐.

모집 일정 ~ 2018년 3월 13일(화)
모집 대상 MG새마을금고에 관심 있는 대학생 누구나

극단 기적

연극 <라면에 파송송>

www.ticket.interpark.com

연극 <라면에 파송송>이 3월 31일까지 대학로 라이브 썸데이즈홀에서 공연 중이야. 라면 가게 '라면에 파송송'에서 무직자 가장, 살벌한 여고생, 밑바닥 한류 스타가 얽히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힐링 코미디 뮤지컬 <라면에 파송송>이 보고 싶다면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예매해봐.

일정 ~ 2018년 3월 31일(토)
장소 대학로 라이브 썸데이즈홀

HR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아웃캠퍼스 cafe.naver.com/outcampus

기업명	직무	홈페이지	지원 마감	기타
LS전선	개발/설계, 해외 영업, 법무, 홍보 등	www.lscareers.com	~ 3.11	LS전선 2018년 수시 채용
두산건설/(주)두산	건축, 시공, R&D, 영업, 재무 등	career.doosan.com	~ 3.14	2018년 두산건설/(주)두산 채용연계형 인턴

공모전

주최	공모전명	분야	지원 마감	상금
에듀윌	에듀윌 최다합격 광고 공모전	UCC, 디자인, 카피	~ 3.20	대상 상금 1,000만원(1명), 최우수상 상금 200만원 (2명), 우수상 상금 100만원(4명), 인기상 상품 신세계상품권 50만원(4명), 참가상 상품 커피 기프티콘
파나소닉코리아	제10회 파나소닉 대학생 홍보대사 PR 챌린지	마케팅	~ 3.25	대상 상금 1,000만원(1팀), 최우수상 상금 500만원(1팀), 우수상 상금 300만원(3팀), 장려상 상금 200만원(5팀), 감투상 상금 100만원(8팀 이내), 수상 팀 파나소닉코리아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 및 방학 인턴 기회 제공
원스토어	제2회 원스토어 북스 웹소설/웹툰 공모전	웹소설, 웹툰	~ 4.8	웹소설:대상 2,000만원(1명), 최우수상 1,000만원(2명), 우수상 500만원(10명), 작품상 100만원(30명) / 웹툰:대상 1,000만원(1명), 최우수상 500만원(2명), 우수상 100만원(10명)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제2회 서울형 도시(주거)재생 대학생 광고 공모전	광고	~ 4.13	최우수상 300만원(1팀), 우수상 100만원(3팀), 장려상 50만원(6팀), 수상자 서울시장 표창
월드퀀트	2018 International Quant Championship	퀀트/금융공학/데이터 분석	~ 5.15	대회 총 상금 $100,000(한화 약 1억원) 이하, 우수한 팀에게는 월드퀀트 리서치 컨설턴트 및 인턴, 정직원 채용 기회 제공

대외활동

주최	대외활동명	활동 기간	지원 마감	활동 혜택
LG유플러스	유플런서 1기	3개월	~ 3.7	활동 기간 내 3가지 미션 수행 및 본인 명의로 개통 후 2019년 2월 28일까지 가입 유지 시 S9단말기 증정
CJ제일제당	쁘띠 프렌즈 2기	4개월	~ 3.9	매월 소정의 활동비 및 과제 수행비 지급, 매월 자사 제품 및 신제품 제공, 현업 실무자 멘토링 기회 제공, 활동 종료 후 서포터즈 수료증 발급, 서포터즈 우수자에게 소정의 상품 수여
LG전자	러브지니 5기	4개월	~ 3.9	수료 후 LG전자 신입사원 공채 지원 시 가점 부여, 우수 활동자 LG전자 해외사업장 및 CSR 현장 방문, 매월 활동비 지원 및 우수 활동 팀 시상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학생 기자단 8기	5개월	~ 3.9	취재비/교통비 지원 (수도권 외 거주자), 프로필 촬영 및 기자단 명함/수료증 증정, 월별 우수 활동자 시상, 임직원과의 직무별 멘토링 및 다양한 기자단 교육, 최우수 활동자 3인 선발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FRIENDS V + FRIENDS T 봉사단	10개월	~ 3.9	1365 자원봉사 시간 부여, 봉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봉사단 명함 및 봉사 활동 물품 지원, 팀별 활동비 지원, 봉사단 네트워크 지원 및 우수 활동 팀 시상
대학내일	유니파일러 10기	3개월	~ 3.11	수료 조건 충족 시 주니어 트렌즈 전문가 수료증 발급, 우수활동자에 한해 대학내일 인턴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대학내일20대연구소 정기 발간 트렌드 도서 집필진 등재
MG새마을금고	MG새마을금고 대학생 기자단 4기	8개월	~ 3.13	매월 활동비 지급, 기자단 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교육 및 워크숍 진행, 활동 종료 시 수료증 수여 및 우수 기자 시상
GS SHOP, 기아대책	리얼러브 9기	8개월	~ 3.19	자기 주도적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경험, 디자인 씽킹 워크숍, 멘토링, 활동비 및 시상금 지급, 단원증 및 수료증 발급, 봉사 활동 인증
서울특별시	2018 Seoul VIDEO CREATOR	9개월	~ 3.28	영상 제작 완료 시 콘텐츠 제작비 지원, 서울 영상 창작가 선정 시 서울특별시장 명의 위촉장 발급, 서울시 주요 행사 및 축제 등 각종 프로그램 참여, 영상 장비 및 스튜디오 대여
돌코리아	아이돌스 2기	3개월	~ 3.30	활동 수료증 발급, 우수 팀 시상금 지급 및 팀별 소정의 월 활동비 지급, 최우수 팀 일본 해외연수 탐방

강연 / 이벤트

주최	행사명	홈페이지	일정	기타
극단 기적	연극 <라면에 파송송>	ticket.interpark.com	~ 3.31	대학로 라이브 썸데이즈홀
내셔널지오그래픽	내셔널지오그래픽 특별전 Photo Ark : 동물들을 위한 방주	www.ngphotoark.modoo.at	~ 5.27	용산 전쟁기념관

공대생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울트라 완전체 노트북
LG 울트라PC GT 리얼 리뷰

공대생 노트북이라면 왠지 이럴 것 같다는 환상이 있다. 가볍고, 배터리 쩔고, 화면 크고, 프리미어 포토샵 캐드 정도는 기본에 오버워치 같은 고성능 게임도 막 돌아가는 꿈에나 나올 법한 슈퍼 울트라 완전체 노트북 같은 거. 그런 게 진짜 있긴 할까? 여기 환상에 빠진 여러분을 위한 울트라PC가 LG에서 나왔다. 진짜 이름이 울트라PC GT다.

EDITOR 이창민

LG 울트라PC GT는 이름만큼이나 미친 노트북이다. 노트북의 양극이라 불리는 휴대성과 성능을 고루 갖췄기 때문이다. 이전까지의 노트북을 떠올려 보자. 1킬로그램 미만의 가벼운 노트북은 비싼 것 대비 성능이 아쉬웠고, 게이밍 노트북은 성능에 몰빵한 덕에 죄다 무겁고 디자인도 괴랄했다. 전공 특성상 성능을 포기할 수 없는 공대생들이 커다란 변신로봇 같은 노트북을 들고 다녔던 이유가 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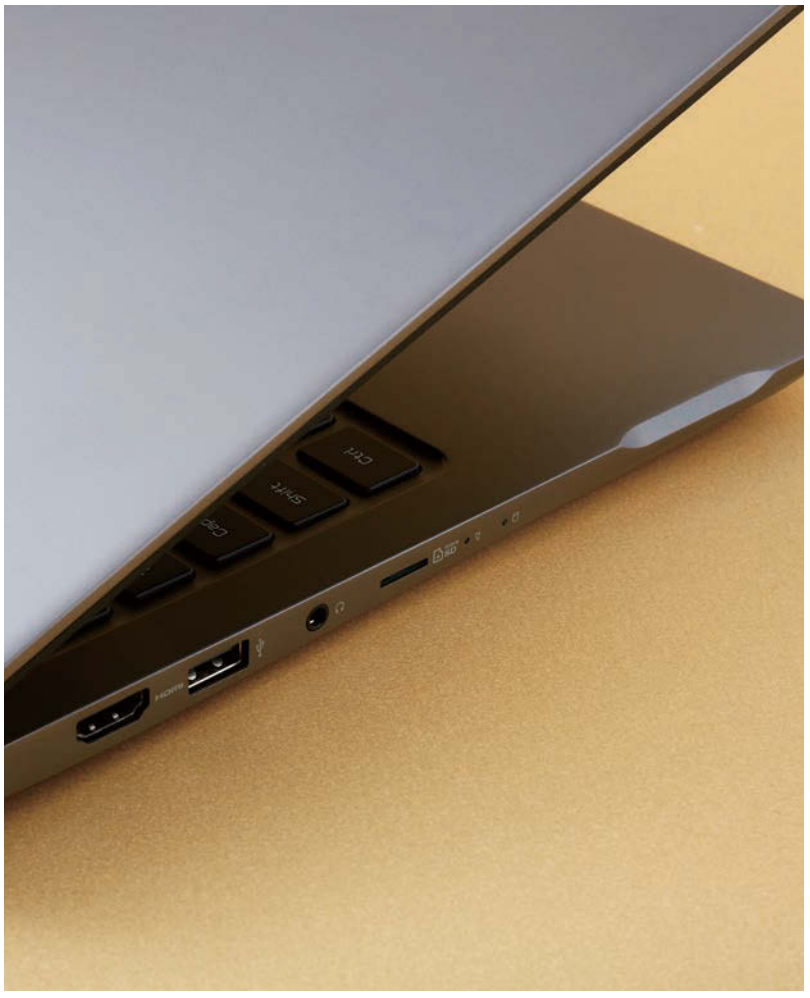
고사양을 원하는 통학러에게 최적

그런 면에서 울트라PC GT는 공대생에게 어쩌면 축복이다. 15.6인치 대화면과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 최신형 인텔 8세대 i7 프로세서와 8기가 DDR4 RAM, 256기가 SSD와 500기가 HDD 모두 탑재한 듀얼 스토리지까지 성능 면에서 모든 장점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 정도 사양의 노트북이라면 백팩에 넣어 다닐 것인데, 1.9킬로그램의 무게와 19.9mm란 두께도 훌륭하다. 60Wh 대용량 배터리 덕에 꽤 오래 어댑터 없이 쓸 수 있으며 어댑터도 자체도 370g으로 가벼운 편이라 장거리 통학러들에겐 특히 유용하겠다.

가장 눈에 건 역시 그래픽 카드. 울트라PC GT에 있는 앤비디아 지포스 GTX 1050는 노트북 선탑재 외장 그래픽치고 꽤 훌륭한 수준. 세부적인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3D 벤치마크 점수는 7000점 이상으로 데스크탑에 맞먹었다. 울트라PC GT도 이점이 특히 자랑할 만했는지 본체부 양 측면에 GEFORCE GTX라고 글자를 세긴 뒤 고급진 챔퍼링 엣지 디자인으로 강조했다.

오버워치 60~100프레임

외장 그래픽 성능이야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오버워치를 다양한 그래픽 옵션으로 테스트해봤고, 60~100프레임 정도의 매우 쾌적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었다. 일부 장면에서 프레임이 떨어지긴 하는데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 환경임을 고려하면 쾌적한 편. 본격적으로 게임용 노트북으로 쓰려면 기존 8GB RAM은 좀 부족할 수 있으니 16GB RAM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자. 1시간 이상 게임한 후에도 CPU 최고 온도는 70도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안정적이었다. 고사양 프로그램을 구동할 때 본체 내부에서 두 개 쿨러가 동시에 열을 냉각시키는 듀얼 파워 쿨링 시스템 덕이다.



챔퍼링 엣지를 적용한 세련된 디자인
어두워도 정확히 타이핑할 수 있는 화이트 백라이트
IPS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어디서나 선명한 광시야각
LG 울트라PC GT는 디테일 역시 놓치지 않았다

고성능이 빛을 발하는 때

대학생에게 필요한 게 게임 뿐은 아니다. 대학생 과제 도구 3대장으로 불리는 포토샵, 프리미어,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그 외 건축이나 설계 전공생들의 필수 프로그램 오토캐드, 3D맥스도 모두 무리 없이 구동 가능하다고 한다. 실제로 포토샵을 구동해 고해상 원본 이미지를 수십 장 열어도 속도감 저하 없이 작업이 원활했다.

특히 CS5 이후 포토샵은 그래픽 성능에 따라 최대 15% 정도로 퍼포먼스 차이가 난다. 주로 3D 그래픽 작업이나 다양한 필터 기능을 이용할 때 차이가 극명해진다고 한다. 과제 지옥에 사는 대학생들, 특히 공대생, 디자인 혹은 영상학과 학생들이라면 결과물을 위해 온갖 에너지를 다 짜내기 마련. 필수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

듀얼 스토리지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꿀단지가 된다. 윈도우를 비롯한 주요 프로그램은 처리 속도가 빠른 SSD에 설치하고, 이미지와 문서, 동영상 같은 일반적인 파일을 HDD에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길 추천한다. SSD는 전체 용량의 80% 이상 차면 그때부터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져 꾸준한 저장 공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본을 지키며 사용성을 높이다

책상이 아닌 무릎에 올려놓고 노트북 쓸 일이 정말 많다는 걸 대학생이 되면 슬슬 깨닫는다. 탁자가 작은 카페나 회의실에서 무릎에 올려서 쓸 일이 잦은 탓이다. 흔히 가볍고 작은 노트북일수록 무릎 위에 올려두고 쓰기 편하다고 착각하는데 틀렸다. 오히려 크고 균형감이 있는 노트북이 편하다.

그런 면에서 울트라PC GT는 본체부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고 힌지가 튼튼해서 그런지 무릎 위에 올려 약간 기울여서 쓰더라도 매우 안정적이었다. 폼팩터 자체가 넉넉하게 커서 그런지 허벅지 위에 두고 빠르게 타이핑해도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놓여 있는 걸 경험할 수 있었다. 장소 변동이 많고 이동이 잦은 대학생에게 큰 장점이다.

USB 3.0 포트(2개), USB 2.0 포트, USB 타입C 포트, HDMI 포트, 이어폰 포트, 유선 랜 단자와 마이크로SD 카드 슬롯까지 최근 출시하는 노트북에서 찾을 수 없는 다양한 확장 슬롯은 울트라PC GT의 또 다른 소소한 장점이다. 이외에도 마우스가 없어도 될 정도의 부드럽고 섬세한 트랙패드, 통통 튀는 키보드 타격감, 어두운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 백라이트까지 기본까지 확실히 챙긴 울트라PC GT다.

소액 적금

새내기 때부터 시작하는 최소한의 저축

아직도 없다면 당장 하나 만들어야 하는 통장이 있다.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주택 분양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준에는 '청약 가점제'가 있는데, 이는 주택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산정해서 반영하기 때문이다. 당장 집을 구입할 계획(은 물론 돈 역시)이 없더라도 미래를 위해 일단은 가입해놔야 하는 이유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시중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만기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모두 동일하다. 월 2만원부터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장점. 추후에 분양을 받지 않게 되면 일반 적금 통장처럼 활용하면 된다.

이 외에도 각 은행에는 1,000원부터 적금이 가능한 자유 적립식 적금 상품, 6개월~1년 정도의 단기간 동안 매일매일 소액을 적금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으니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저축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자유적립이나 정액적립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9가지 우대이율 중 6가지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KB 내맘대로적금, 아이콘 적립 및 추천 실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KB Smart★폰 적금 등을 추천한다.

이밖에도 금융감독원이 지원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 finlife.fss.or.kr에 들어가면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각종 금융상품들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다.

앱테크

장거리 통학러들은 필수! 자투리 시간에 용돈 벌기

부자들일수록 푼돈을 아낀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경제 상식(?)이다. 바꿔 말하면 푼돈을 아끼는 마인드가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통학시간, 공강시간 등 게임과 SNS로 그냥 흘려버리기 쉬운 각종 자투리 시간에 앱테크를 한 번 해보자. 앱테크란 앱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설문조사, 출석체크, 잠금화면 풀기 등의 미션을 수행하는 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미션을 수행하며 포인트를 모아 일정액 이상을 모으면 현금화 하는 방식이며, 최근에는 이런 리워드 방식에 각종 혜택을 더한 앱이 출시돼 인기다. KB금융그룹의 리브메이트(Liiv Mate) 앱이 대표적인데, 기타 앱들이 가진 기능에 더해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플레인 요거트 아이스크림 등의 모바일 쿠폰을 매일 랜덤한 시각에 100원 핫딜가에 제공하고 있다. 또 리브메이트 기반의 증강현실 게임, 캣크러시를 통해 스타샵 가맹점을 찾아 간단한 미션(퍼즐게임)을 성공하면 50P, 한 달동안 최대 5,000P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네이버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 카페', '자산관리는 거북이처럼' 등의 재테크 카페에 가입하면 푼돈으로 목돈을 만드는 깨알 정보들을 더욱 많이 얻을 수 있다.

전 재산 0원! 스무 살에 빈손으로 시작하는 슬기로운 재테크 생활

등록금 내고 용돈 쓰기에도 빠듯한 지갑이지만, 그렇다고 재테크를 포기해선 안 된다.

EDITOR 신형

Welcome Liiv Mate

Liiv Mate 리브메이트 가입하고 맥북프로 받자!

| 행사기간 2018.3.1(목) ~ 3.31(토)

| 행사대상 Liiv Mate 최초 가입회원

| 참여방법

1) Liiv Mate 앱 다운로드

2) 회원가입 시 추천인정보 입력단계에서 프로모션코드에 '리브메이트' 입력

| 당첨안내

- 2018.4.27(금) 이내 당첨자 개별 안내 예정

| 행사내용

- Liiv Mate 신규 회원가입 시 포인트리 1,000P 즉시 지급
- 신규가입 회원 중 3명을 추첨해 애플 MacBook Pro(13형 512GB) 제공

단, Liiv Mate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추첨기회 부여

소액투자

본격적인 스펙 쌓기, 투자 공부와 함께!

재테크가 한창 광풍이던 시절, 커피 한잔 값을 아껴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해보라는 말이 유행이었다. 사실 별다방 커피값이 아니라, 캔커피 한 잔 값만 있어도 많은 기업의 주식 한 주를 살 수 있다. 그러니 한 달에 5천원, 1만원, 3만원 등의 액수를 정해 그 안에서 주식 투자를 경험해보자. 이때 경제기사를 꾸준히 읽으며 본인의 관심 분야 산업과 연계해 투자해보면 더욱 좋다. 예를 들어 화장품 업계 취업을 꿈꾸고 있다면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투자를 해보는 것이다. 물론 생활에 절대 부담이 되지 않을 선에서만 투자하고, 수익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본격적인 투자는 사회생활이 시작된 후에 해도 늦지 않으니 대학시절의 투자는 미리 예습해보는 교육비 지출이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자대회에 참가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키움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여러 증권회사에서 대학생 모의투자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익률에 따라 상금 외에도 인턴십, 해외탐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등의 주식투자 관련 카페에서 회원들끼리 나누는 정보도 많은 공부가 되니 참고하자.

지원정책

취준생, 청년 대상 금융 혜택을 노려라!

취업을 앞둔 고학년이라면 각종 시, 도에서 지원 중인 제도를 미리 잘 살펴봐두자. 청년 시기에만 받을 수 있는 각종 금융 혜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취업 후 매월 자신의 저축액과 같은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2년을 저축하면 총 48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서울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의 소득 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일정한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비슷한 정책으로는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일하는 청년 연금', 중소기업의 임금을 지원해주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지난 2월에 1차 모집을 마감했으며 오는 4월에 총 4만500명을 2차로 선발할 예정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www.welfare.seoul.kr/youth 에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youth.jobaba.net 에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항목	서비스 이용	추가 추첨기회
포인트리 사용	Liiv Mate에서 포인트리 보내기/충전/ATM출금/교환	1회
바코드 결제	바코드결제, OK캐쉬백결제	1회
캣크러시	캣크러시에서 포인트리 적립	1회
쿠폰구매	Mate쿠폰, 제휴쿠폰	1회
퀴즈참여	오늘의 퀴즈, 시사경제퀴즈	1회
소비매니저	소비내역 등록, 예산등록	1회

유의사항

- 동일 서비스항목 내 서비스 이용 건은 1회만 인정
  예) 보내기 1회+ATM출금 1회 → 추가 추첨기회 1회 부여
- 해당경품 단종 또는 품절 시 동급 이상의 상품으로 대체 가능
- 제세공과금은 당사 부담

※ 본 행사는 Liiv Mate의 영업정책 및 제휴업체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Liiv Mate 고객센터(1644-9311)

Liiv Mate 바로가기

가격부터 성능까지, 가성비 갑
당신이 그레잇북을 사야 할 이유 6가지

개강 시즌 우리의 머릿속은 새로 살 노트북으로 가득 찬다. 이럴 때 레노버는 어쩌면 장학재단 같다. 초호화 성능의 최신형 노트북을 동급 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매년 꼬박꼬박 출시해주기 때문이다. 올해도 어김없는 레노버의 선행은 레노버 그레잇북720S(아이디어패드)다.

EDITOR 이창민

1. 심플하고 간결한 디자인

우리에게 노트북은 옷이다. 집보다는 강의실, 카페, 도서관에서 더 많이 쓴다. 그래서 백과사전 마냥 묵직한 노트북은 무겁기 전에 창피하다. 디자인이 중요한 이유다. 그런 면에서 그레잇북 720S은 누구에게나 어울릴 깔끔한 디자인. 컬러는 샴페인 골드와 플래티넘 실버(그레잇북 720S), 스노우 화이트와 미네랄 그레이(그레잇북 320S) 등 새내기 여학생부터 복학생 아저씨까지 대학 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컬러 구성이다.

2. 가볍고 오래 가는 휴대성

그레잇북 720S는 13인치 기준 1.1kg의 가벼운 무게와 최대 11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를 탑재했다. 충전기를 챙겨 다니지 않아도 되고 콘센트가 없어도 부담 없이 꺼내 쓸 수 있어 좋다. 또한, 상시 충전 기능을 갖춰 전원이 꺼져 있어도 USB 포트를 이용해 휴대폰 등 다양한 장치를 충전할 수 있다. 켰을 때는 노트북, 껐을 때는 초고용량 외장 배터리가 되는 셈이다.

3. 180도 떡 벌어지는 화면

그레잇북 720S는 화면을 180도로 펼칠 수 있다. 조별 과제 하며 화면 공유할 일이 있을 때 노트북 화면을 쫙 밀어서 평면으로 펼친다면 어떨까? 유용성을 느끼기도 전에 조원들의 탄성을 먼저 듣게 될 것이다. 180도로 펼쳐지는 화면의 비밀은 힌지에 있다. 화면부와 본체부를 연결하는 부품이다. 펼치는 각도가 넓어질수록 힌지 마모나 고장에 취약해지기 때문인데, 레노버는 전 세계에서 노트북 힌지 기술력이 가장 높다. 어느 각도로 펼쳐도 단단하게 고정되며 오래 써도 잔 고장이 없다.

4. 편안한 키감, 지문인식 버튼 등 높은 사용성

통통 튀는 느낌 없이 편안하게 눌리는 키감 역시 그레잇북 720S의 자랑거리다. 소음 또한 적어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지문인식 버튼은 그야말로 기술의 은총이다. 떠올려보자. 부모님과 애인에게 비밀번호를 들켜 은밀한 사생활을 들키고 말았던 기억을. 그레잇북 720S는 지문인식 버튼을 탑재해 비밀번호와 관련된 모든 아찔한 경험을 말끔히 해결해준다.

5. 이 가격이 맞아요? 가성비 왕 고성능

그레잇북 720S는 최대 8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 16GB RAM 및 512 SSD를 탑재한다. 게이밍 노트북을 제외하면 최신 노트북 중에서도 최고 사양이다. 그런데도 가격만큼은 매우 저렴하다. 레노버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8GB RAM, 256GB SSD, 지포스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14인치 제품의 가격이 109만 원이다. 동급 타 브랜드 제품 대비 50만 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대학생에게 '백몇만 원'과 '백몇십만 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알바를 한 달 덜해도 살 수 있다는 뜻이니까.

6. 노트북으로 즐기는 배틀그라운드

그레잇북 320S는 지포스 MX150 2GB 외장 그래픽을 탑재했다.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등 최신 3D 게임을 준수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다. 심지어 JBL 프리미엄 오디오 스피커를 탑재해 깔끔하고 디테일한 사운드를 뽑아준다. 새 학기를 맞아 사는 노트북을 노는 데만 쓸 수야 없다. 포토샵, 프리미어 등 다양한 고성능 영상/그래픽 프로그램도 척척 돌려주며, 세상에서 가장 빠른 썬더볼트 USB 타입C 포트를 활용해 USB 디스크나 외장하드 등으로 데이터 공유도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으니 조별과제 시 활용도가 급 상승. 작정하고 대학생을 노린 노트북임이 분명하다. 그 치밀하고 냉철한 전략에 기립박수를 보낸다.

더 저렴한 노트북을 원한다면? 그레잇북 320S

레포트 작성이나 웹서핑 용도로만 간단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하위 라인업인 그레잇북 320S를 추천한다. 8세대 인텔 코아 i5-8250U 프로세서, 4GB 메모리, SSD 256GB를 탑재한 최신 제품이며, 그레잇북 720S와 같은 패밀리 룩으로 디자인해 심플하고 날렵한 디자인과 180도까지 펼쳐지는 화면 등 장점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기획전 혜택가 78만 7550원이란 저렴한 가격대를 자랑하기 때문.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도 쓸만한 노트북을 찾는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제품이다.

당신의 행복스토리가 더 큰 희망으로!

제10회 한국장학재단 수기·UCC공모전

학자금 부문

학자금 수혜사례

학생 (수기)	학부모(수기)
정부 장학금(국가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수혜를 받은 학부 및 대학(원) 재적생(졸업생 포함) 및 학부모	

국가교육근로장학금

멘토 (수기)	대학담당자 (우수사례)
'17년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수혜를 받은 학생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을 운영한 대학 담당자

기부 부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학생 (수기) *아래 공모자격 중 1가지 이상 해당학생
'17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수혜학생 '17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수혜학생 '17년 기부재원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여 학생 (세계를 향한 꿈 도전단, Realize Your Dream 등)

- 주최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접수기간 : ~2018. 3. 23.(금)
- 접수방법 : ①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링크
  ②수기·UCC 공모전 홈페이지
  www.promotiondaum-dg.net
- 시상 내용 : 총 115편, 총 상금 4,050만원

멘토링 부문

대학생 청소년교육 지원 사업

멘토 (수기)
'17년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 및 활동완료 멘토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멘토 (수기)	기관/대학 담당자 (수기)
'17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참여 멘토	'17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참여한 기관(대학) 담당자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사업

멘토 (수기)	멘토 (UCC)	멘토 (포스터)
'17년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사업 참여 및 활동완료 멘토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개인 (수기)	팀 (수기)
'17년 멘토링 우수참여 멘티/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

교육부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에쎄 체인지 빙 타르 1.0mg / 니코틴 0.10mg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